

Driving Tomorrow



지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부드러운 비행

중대형 세단을 위한 **프리미엄** 타이어의 완벽한 진화

N FERA AU5

① 탁월한 승차감 _ 비대칭 패턴디자인, 강성 최적 배분, 블록 균등 분할로 향상된 진동감소

② 소음방지 기술 _ 그루브의 폭 설계 및 블록 균등 분할로 접지면 타이어 소음 최소화

③ 마일리지 및 연비향상 _ 균일 접지 최적화로 이상 마모 방지, 신소재 기술 적용으로 마일리지 향상, 에너지 손실 최소화

④ 프리미엄 패턴 디자인 _ 비발디 사계를 형상화하여 성능과 효율성, 품격의 극대화



N FERA RU5 SUV

SUV용 프리미엄 타이어 엔페라 RU5

NEXEN 넥센타이어

www.nexentire.com 고객센터 ARS 1577-2781

넥센타이어



Hello NEXEN facebook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_ Driving Tomorrow NEXEN

헬로우 넥센



"내 마음의
스피드를 쫓는다"

HELLO NEXEN | Vol.52 2013년 여름호 www.nexentire.com

넥센타이어와 통하는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고객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넥센타이어가
온라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넥센타이어의 다양한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소통하며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자동차와 연비, 드라이브 코스 등은 물론,
'타이어'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넥센타이어의 역사, 공장 곳곳의 소식과 숨겨진 이야기 또한
새로운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궁금하다면 지금 접속하세요.

blog.naver.com/nexen_tire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Epilogue

참여해주세요

〈헬로우넥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hellonexen)
메시지, 엽서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7월 중으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8월 15일까지
아래 사보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 담당자 경영관리팀

박수현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지난 호 정답

세로

1 연도상 3 인천 5 애육원

가로

1 연주 2 제주도 3 인형 4 치즈

퀴즈 당첨자

- 서승환 부산시 남구 대연3동
- 박성환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 박난희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 양옥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 하지연 전남 여주시 웅천동
- 하은진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 김성환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 김미루 경남 거제시 거제면
- 형시연 제주도 조천읍 대흘리
- 도승진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머리가 좋아지는 스도쿠

		8			3	9		
	3	9	4		2	1		7
7				1			6	
1				8		6		4
	9		5	3			1	
3		2	1					8
	6			4				1
4		3	7		1	8	5	
		1	3			4		

게임 방법 : 가로줄 9칸, 세로줄 9칸, 작은 상자 3x3=9칸에 1~9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가로줄, 세로줄에 각각 1~9까지의 수를 중
복, 누락 없이 하나씩만 넣고, 3x3칸의 작은 상자에도 1~9까지 겹치지
숫자를 알맞게 채워보세요.



정말 네가

C

ONTENTS

Nmind

- 04 Read
'밥심'으로 산다는 것은
- 08 Learn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12 Interview
주말농부 이계진
- 16 Ultra Mania
텃밭 가꾸기 마니아 총무1팀 강동환 사우
- 20 Culture
당신의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북강스
- 22 Drive & Leisure
인천 영종도 낙조 여행
- 26 Team Story
생산기술팀의 행복한 클래식 피크닉

Nlife

- 30 Family Day
정세훈 대리 부부의 셀프와인 체험
- 34 About Food
소문난 여름철 보양식 맛 vs 맛
- 38 Project N
도전 사우들의 수업을 엿보다
- 42 On Air
'파란 눈의 넥통령' 테드핑 인터뷰
- 46 Happy Together
재료파트 백운포 바다 청소 봉사
- 50 Wide Road
순수의 대지, 티니안을 탐험하다
- 54 N Photogenic
내 생애 최고의 휴가
- 58 Money Tip
천하무적 월급 통장 찾기

Ncompany

- 60 Mentor & Mentee
진주성 나들이
- 64 Car & Tire
휴가 전후 타이어 점검법
- 66 Tire Tech
타이어 테크 동김해점
- 70 Special Column
비상을 준비하는 넥센타이어
- 72 News Center
넥센 뉴스
- 76 농반진반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 78 @hellonexen
파이팅~ 내 사랑 넥센히어로즈!
- 79 Epilogue
퀴즈 및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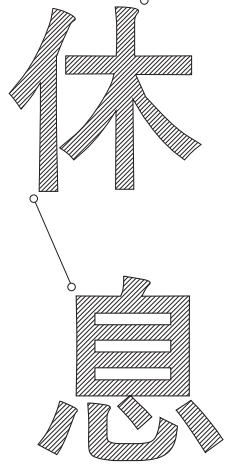


표지 이야기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가끔 일상에도 쉼표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늘 한 번, 푸른 나뭇잎 한 번
쳐다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휴식 속에서 새로운 길이 보일 겁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3년 여름호 통권 52호 | 발행인 이현봉 | 발행일 2013년 7월 1일 | 발행처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넥센타이어(주) 경영관리팀 | 담당 박수현 (055-370-5283) | 기획 및 디자인
(주)하이미디어PM (02-795-3364) | 디자인 백선영, 김지선, 장윤희 | 교열 정수환 | 사진 사진
과책 (02-587-1102) |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3377) | 인쇄 삼조인쇄주식회사



기계도 1년을 꼬박 쉬지 않고 돌릴 수 없다.
하물며 사람에게 여유란 일상 속에서 선택할
일이 아닌 자신을 위해 꼭 가져야 하는
의무이다. 뜨거운 여름 별 아래 여전히
숨 가쁜 매일을 보내고 있다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은 잠시
숨을 돌리자.

돈을 좀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아내와 사느니 못 사느니 골머리 아프게 싸움질을 해대고 출가도 아닌 가출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소박맞은 여편네처럼 얼떨결에 전기밥솥까지 싸들고 집을 나섰는데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충남 서산에 자리한 가야산 자락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밥벌이 원고에 매달리다 보니 보약이라도 먹어야 할 만큼 핏기 없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배지에 틀어박혀 있다가 모처럼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며 산나물을 뜯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자락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임시 거처로 돌아와 한 뭉텅이 뜯어 온 산나물을 된장에 조물락조물락 버무렸습니다. 산나물 반찬도 반찬이지만 밥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밥만 먹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것은...



밥돌이의 건강 비결

1식 1찬의 밥상 앞에서 문득 우리 집 작은 녀석의 어릴 때가 배시시 떠올랐습니다. 온종일 산과 들을 헤집고 다니다가 밥을 먹지 않고 초저녁에 잠들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중간에 일어나 밥 한 그릇 똑딱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밥돌이’. 맹물에 밥 말아 김치 쪄가리면 충분한 녀석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밥’이었습니다.

“인상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엄마.”

“왜?” “밥 해주니까.” “그다음에는 누가 좋아?” “아빠.”

“아빠는 왜 좋은데?” “엄마 대신 밥 해줄 때도 있잖아.”

엄마 아빠가 짹짹거리며 놀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장대소해도 ‘이상한 사람들 다 봤네, 밥이 좋다는데 뭐가 어때서’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 대안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밥돌이 녀석. 그동안 가난한 아버 만나 보약 한 첩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에이, 비, 시, 디 알파벳이 들어가는 비타민 파우를 정기적으로 복용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맛바꿔야 할 보약 대신 산나물, 농약은 물론이고 화학비료조차 뿌리지 않은 쌀밥이나 밭에서 나온 싱싱한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이렇다 할 잔병을 앓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집중하는 독감 주사조차 맞지 않았지만 감기 때문에 병원 신세 처분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다 ‘밥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밥과 여유 그리고 진심

여유로운 마음자리에 밥이 들어가면 보약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시골 생활을 하면서 만난 유 씨 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월을 앞서 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아, 갈 테면 가거라. 날랑 그냥 천천히 뒤따라갈 텅께’ 천하태평 여유로운 마음자리로 생활하셨습니다. 계룡산 주변에서 평생을 살다간 유 씨 할아버지였지만 온갖 몸에 좋다는 약초 챙겨 먹는 그렇고 그런 도인도 아니었고 처마 끝에 값나가는 보약 첩첩이 매달아놓고 살아가는 돈깨나 있는 배불뚝이 지주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의 땅 부처 먹어가며 상머슴처럼 흥과 함께 살아온 평범한 시골 촌로였습니다. 제 농사 사부이기도 했던 그분은 한참 젊은 저보다 더 많은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실 때는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유 씨 할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늘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농 초년생 시절, 땀감을 장만하기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지게질을 할 때 그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빈 지게로 산을 오를 때는 가벼운 걸음이지만 땀감을 지고 내려올 때는 숨을 헐떡이는 저와 달리 유 씨 할아버지는 빈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때나 땀감을 지고 산을 내려올 때나 느릿느릿 변함없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유 씨 할아버지는 편지글을 대신 읽어줘야 할 만큼 배운 것은 없지만 머리 굴려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가슴으로 말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보면 속 터질 만큼 느리게 일했지만 발 일구는 소에게 가마솥에 군불 지펴 여물을 끓여 먹이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했습니다. 이렇다 할 보약 없이 하루 세끼 밥의 힘으로 80세를 사셨습니다.

다시 활기찬 삶을 꿈꾸며

조선 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겨우 47세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조처럼 82세까지 장수한 왕도 있었지만 40세를 넘기지 못한 왕이 무려 1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더 큰 가치로 뒀아 할 일이지만 항시 어의를 곁에 두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 왕들이 오래 살지 못한 것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영양가 높은 산해진미를 너무 많이 먹은 데다 당파 싸움, 왕권 쟁탈전 등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요? 50세 중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손꼽으라면 가난한 살림살이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 ‘밥심’으로 오로지 농사일에만 매달렸던 세월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도시의 밥벌이, 방송작가 일을 접어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시골로 들어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밭을 갈았습니다. 이른 아침 해 뜨기 전 삽질하고 돌 골라내고 쇠스랑질로 고랑 만들고 땀별 들면 사랑방에서 늘어지게 한숨 자고 늦은 오후 다시 나가 밭을 갈았습니다. 뉘엿뉘엿 해 질 녘이 되면 집에 돌아와 주변 사람들이나 처자식과 어울려 뭐 재미난 거 없을까? 궁리하다 밤잠을 잤습니다. 그다음 날, 또 그다음 날도 산 아래 밭에서 하루 두 차례 땀범벅, 시원하게 먹 감는 기분으로 밭을 일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불쌍한 중생, 그냥 한 줌 흙이나 다를 바 없다 싶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만치 날아가는 새들의 흔적 없는 날갯짓으로 활기분했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밥심’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그 어리석고도 불쌍한 중생이 유배지에서 풀려날 날을 손꼽아봅니다. 산속이든 도심이든 스스로 감혀 사는 유배객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마는. 10

잠깐 멈추시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커피



연말 보너스

커피, 연말 보너스

출근 후 인스턴트 믹스 커피와 함께 업무 시작 그리고 점심 후 입가심으로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3~4시경 오후의 나른함을 달래기 위해 또 커피 한 잔, 저녁 식사 후 커피 전문점으로 달려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2012년, 한 포털사이트가 20대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1%가 '커피를 마신다'고 답했고, 이들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은 2.4잔으로 나타났다. 하루 3잔 이상 마신다는 응답자도 40.5%에 달했고,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 중 88%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금단증상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많은 직장인이 일하는 동안 커피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좋을 것이 없는 것처럼 커피도 마찬가지다. 커피값 또한 만만치 않아 1년 치를 계산하면 생각보다 꽤 많다. 앞으로 커피값을 아껴 연말 보너스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지난해 한 금융회사는 커피 등 직장인들이 흔히 생각 없이 쓰는 항목을 아꼈을 경우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그 금액만큼 적금 통장에 적립되는 스마트폰 전용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망을 꼭 참고 아이콘을 누르면 커피값만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매일 한 잔씩만 적립해도 1년 뒤에는 원금만 180만 원이 넘는다. 버릇처럼 마시던 커피를 줄이면 반가운 연말 보너스로 돌아오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으랴.



즐거움을 위해 혹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보낸 시간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혹시 당신도 그 무언가에 중독되진 않았는가?

심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것들과 잠시 떨어져보자.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이제껏 보지 못한 신세계가 열릴지이다.

담배



건강

담배, 건강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흡연자의 60%가 금연을 계획하지만 그중 80%는 중도에 포기한다고 한다. 이 죽일 놈의 담배, 정말이지 죽기보다 끊기 어렵다. 흡연자들이 담배의 해로움을 몰라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쁘다는 것은 알아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보통 담배를 피우면 7초 만에 니코틴이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인 도파민의 농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30분쯤 지나면 도파민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불안, 우울, 짜증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담배를 다시 피우면 마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니코틴 금단증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것뿐이다. 또 일산화탄소가 혈액에 흐르면서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노화되어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토록 백해무익한 담배와 이번엔 제대로 헤어져보자. 담배와 안녕을 고하는 순간부터 몸의 기능이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특히 일산화탄소로 인해 줄었던 산소 공급이 복구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금연을 위한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개 선언과 결연한 의지다. 담배는 정말 끊기 힘들지만 그만쯤 후에 얻게 되는 것도 많다. 그동안 실패했던 경험은 잊어버리고 다시 한 번 금연의 전장에 뛰어들자.

스마트폰



세상을 보는 시야

스마트폰, 세상을 보는 시야

스마트폰을 줄여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맛폰'이라고 부른다. 한번 맛을 보면 도저히 헤어지지 못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스마트폰은 분명 편리하고 재미있는 물건임에 틀림없다. 영화는 물론 게임, 길 찾기, 인터넷, 뉴스 보기, 각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들어 있으니 말이다. 누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할 길이 막막할 때도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두어 번 쓱쓱 밀어대면 즉시 답이 나온다. 그야말로 스마트하다. 그러나 문제는 기계 주인은 그저 테크닉만 늘어나 점점 머리 쓸 일이 없어진다는 것. 게다가 지나친 SNS 활용에 따른 문제도 있다. 다른 시공간의 사람들과는 소통할지언정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인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8시간 20분이라고 한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다. 당신은 하루에 책을 몇 분이나 읽는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평일 독서 시간은 한 달에 30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20개월가량의 평일 독서 시간을 합쳐야 스마트폰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가끔은 4인치 스마트폰의 시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말



상대를 사로잡는 힘

말, 상대를 사로잡는 힘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격언은 백번 들어도 지당한 말씀이다. 지나치게 말이 많아 비난받는 사람은 있어도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비난받는 사람은 없다. 당신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말을 하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경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마는 것. 말을 많이 하면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꿈의 동료인 '말이 많은 사람'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물론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의 말에 집중해보자. 그럴수록 상대방 역시 내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받는 대로 갚는다는 '상호성의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되는 셈이다. 또 집중해 듣다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타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질문을 곁들이면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된다. 더불어 말을 하는 데에만 열중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지만 열심히 들으면 그만큼 실수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자존심을 북돋아주어 신뢰까지 얻을 수 있으니, 경청이야말로 상대를 사로잡는 최고의 기술이라 할 수 있겠다. ¹⁰

주말농부 이계진

소년처럼 웃으며 청년처럼 일하며 노인처럼 쉬며



Hello NEXEN

그날 따라 유난히 길이 막혔다. 조금 늦을 것 같아 전화를 걸었더니 “찬찬히, 조심히 오시라”는 목소리가 돌아온 맘을 편케 한다. 해가 뜨겁기 전, 일찌감치 새벽 발일을 마친 그는 이웃 농부와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며 술앞차를 마시는 중이었다. 산촌의 시계는 그토록 바지런히 다박다박 돌아가는 것일까. 도심의 속도와 달리 보채지 않는 것, 하나 늘어지 지 않고 기분 좋을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 그게 촌, 섬 그리고 이계진의 오늘날인 듯했다.

우리네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비유한다면,
나는 오후 7시를 훌쩍 넘겼겠군요.
당신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향해 가고 있나요?

섬에 대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지요. 제 연배들은 스스로 생의 시계를 들여다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1946년생 무렵의 이 생은 이미 오후 7시를 훌쩍 넘겼으니까요. 하여, 이제는 시계가 멈추는 자정까지 검고 적막한 밤만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의 고요만을 응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너무 외롭고 서러워 자꾸 눈물만 나지 않을까요.

이곳은 화계산 언저리입니다. (화계산은 제가 붙인 이름으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 찾아보는 수고는 마시길.) 화계산에서 우리들은 비 오는 날 오후 3시가 되면 호미, 팽이를 집어던지고 “야호!”를 외친 후 ‘날긋이’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긋이란, 날이긋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부침개나 부쳐 먹으며 노닥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피약벌에서 일을 하다가도 비가 우뚝우뚝 돋으면 비닐하우스나 양철 지붕 아래 피우처(避雨處)로



모여듭니다. 모여든 이들은 서울에서 짧은 날을 열정적으로 살고, 이제는 촌에서 취미농으로 살아가는 ‘건농회’의 회원 여덟 명이지요. 좀 더 죽이 맞는 날엔 회비를 모아 읍내에서 돼지 목살을 세 근 사옵니다. 직접 만든 아궁이에 가마솥을 걸어 술가지와 양파 채를 깔고 고기를 얹어 찌면 기름기는 빠지고 술향기 은은한 수육이 됩니다. 수육 한 점 집어 입에 넣고 소주 한 잔을 넘기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저는 서울에서도 마음만은 ‘촌남자’였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저를 ‘턱시도 차려입고 슈퍼모델 대회 진행하던’ 아나운서로 기억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자연 속에서 노닐다 오면 일이 더 잘됐습니다. 물론, 성공도 좋지요. 남보다 잘나가는 것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니다. 달리다가도 탁, 브레이크를 걸고, 뇌 터지게 일하다가도 텅, 머릿속을 비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몇 시간 켜면 나면 고민 않고 극장에 달려가 영화에 폭 빠져 있다 오곤 했어요. 도심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영화나 뮤지컬에

몰입하는 것도 분명한 쉼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일에서 빠져나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일과 일상에서 스스 빠져나오는 ‘의도적 탈출’이 필요하고요. 생활이 걸려 있는 일이니 뭐랄 수도 없어요. 도시 속에서는 자주, 의도적으로 도망갔다 돌아오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살던 저는 15년 전 법정 스님의 부추감에 힘입어 서울을 탈출하게 됩니다. 당시 제 나이 쉰. 무엇이 그리 큰 용기를 줬을까요. 아이들도 대학을 마치지 않았고, 부모님도 편찮으신 시절, 프리랜서 활동이 가장 왕성하던 그때에 촌에 덜컥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부영부영’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는 도시 여자 아내에게 저는 “밭일은 하지 마라. 모두 내가 맡겠다”고 말해두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골 땅을 사는 것을 두고 어리석은 투자라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투자 덕에 프로그램이 종영돼도 남들처럼 받을 동등 구르지 않았습니다. 쌀 살 돈, 전기료, 연료비, 막걸리값, 경조사비 정도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무엇도 두려울 게 없었죠. 물론 화전민 땅이라 처음엔 고되었죠. 돌 캐내고, 나무 심고, 물 끌어오고, 아궁이 만들고, 뼈가 삭게 힘들었죠. 동네 분들은 “저 아나운서가 예 와서 왜 사나. 땅값 올려놓고 팔아먹으려 하니”라고도 했었죠. 이제는 더할 수 없이 친해져 가을이면 ‘옥토버 페스티벌’ 도 열고, 노래자랑 심사는 제가 봅니다만.

촌에서는 할 일이 끝이지 않아요. 어정어정 산책이나 좀 해야지 싶어 나왔다가도 꽃잎 쓸어야겠다 싶어 비 들고, 장갑 끼고, 그러다 보면 뽕족한 돌이 눈에 걸려 치우고 있고, 돌 치우다 보니 개가 배고파 비실거려요. 밥 줘야지 싶어 챙겨주고 돌아서면 퐁을 쏜단 말이에요. 그 퐁, 주인이 치워야죠. 매일 라디오 방송 가기 바로 전까지 묘목을 돌보느라 기진맥진해져도 ‘그래도 내 덕에 니들이 잘 살아 있구나’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밭일하다 떠오르는 좋은 문장이 방송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안’에서 빔어져 솟아 나온 진짜배기 한 문장이 1시간의 방송을 빛나게 하는 법이니까요.

촌에서 하는 일은 죄다 ‘쉽’ 과 다름없어요. 가만히 누워 있어도 머릿속이 북닥거리면 그게 다 노동이죠. 부장에게 깨진 것, 처리할 업무, 미운 놈이 머리에 가득하면 쉬어도 괴로워요. 몸 편해도 맘 불편하면 휴식이 아니란 소리죠. 그런데 ‘을’로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 대부분의 속이 편할 리 없는 건 당연해요. 늘 피해 보는 것 같고, 늘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라는 마음의 병을 지니고 삽니다. 그 병을 치유할 힘은 자연과 육체노동에서 나온다고 믿어요.



‘쉴 휴(休)’자를 보세요. 나무에 사람이 기대 있으면 그게 바로 쉼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집 찬장에 새가 동지를 틀고 알을

낳았어요. 새는 독 문은 쌀을 먹을지, 솔개에게 채어 갈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오늘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늘 아등바등합니다. 끝없는 욕심 때문에 도박을 하고 투기를 하며 언젠가는 분명히 잃게 될 젊음에 매달려 악착같이 몸을 조이고 쥐기도 해요. 그런데 자연은 ‘그치는 법’을 알게 해줬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의 아나운서 생활, 두 번의 국회의원 생활로 분주하고 뜨거웠던 하나의 삶을 잘 갈무리하고 자연에 돌아와 또 하나의 삶을 살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흠쩍 들었던 돌을 올해는 들지 못하게 되고, 어제 한 일보다 오늘은 조금 적게 일을 해야 하는 게 노화입니다. 그렇게 저도 하루하루 더욱 노인이 되어가지만, 산속이니까 늙을 만합니다. 가는 시간이 그저 즐거움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늙고, 조금 더 평안해질 겁니다. ㉞

* 이계진 씨와의 인터뷰를 방송 진행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텃밭 가꾸기 마니아 총무팀 강동환 사우

텃밭에 빠진 사나이

텃밭에 빠져도 아주 폭 빠졌다. 틈만 나면 열 일 다 제쳐두고 텃밭으로 달려가는 이 남자, 알고 보니 농부가 아니라 넥센인이다. 연둣빛 물감이 온 밭에 퍼진 요즘 같은 땀 손놀림이 더욱 바빠진다는 강동환 사주의 고단하지만 즐거운 속내를 들어봤다.

하동 촌놈, 텃밭과 사랑에 빠지다

넥센타이어 양산 본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삼감마을 초입. 행여나 텃밭을 그냥 지나칠까, 강동환 사우는 큰길까지 마중 나와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의 친절한 안내로 당도한 텃밭에는 푸릇푸릇 싱싱한 열무, 상추, 감자, 야콘 등이 열 맞춰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지금은 눈만 뜨면 텃밭으로 달려가는 그이지만 5년 전만 해도 농사일과는 거리가 한참 먼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시작은 경남 하동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짓던 부모님이 무심코 생각하면서부터였다.

“아이가 제법 크고,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본 부모님의 삶,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거나 초록 앞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이 문득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한 번쯤 농사를 지으며 살아보고 싶었어요.”

때마침 몇몇 넥센타이어 사우들과 함께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도시농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강동환 사우는 텃밭 작물 재배 과정을 교육하는 도시농부학교 3기 졸업생이다. 과정 수료 후 처음 분양받은 곳이 천성산 중턱에 위치한 계단식 돌밭. 동네 사람들도 어디 땅이 없어서 저런 몹쓸 땅에 농사를 짓느냐고 혀를 내둘렀다던 곳이다. 하지만 그는 나만의 밭이 생겼다는 뿌듯함에 밤낮없이 정성스레 밭을 일궜다. 결과는 대성공. 같이 밭을 가꾼 동료들과 함께 MBC경남의 <당신의 이야기통>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었을 만큼 이슈가 되었다. 이후 농사짓는 숨씨를 인정받아 점점 더 넓은 밭을 분양받았고, 현재는 600평이 넘는 삼감마을의 텃밭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밭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자연을 가까이하며 마른 가지처럼 바삭 말라 있던 몸과 마음도 함께 치유된 것이다.

“몸은 고단하지만, 머리는 한결 가벼워졌어요. 밥도 꿀맛이랍니다. 특히 수확하러 갈 때는 정말 발걸음이 가벼워요. 수확한 작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이런 게 행복이다 싶죠.”

유기농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동환 사우는 현재 삼감마을 생명텃밭을 함께 꾸려가는 농부들의 멘토 역할을 맡고 있다. 땅을 일구는 것부터 작물을 심는 방법까지 농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알려준다고 하니 과연 자타 공인 ‘능력자 농부’ 답다. 실제로 그는 땅도 살리고 더 좋은 품질의 작물을 거둘 수 있는 유기농법을 전파해 삼감마을 텃밭을 친환경 재배지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땅도 숨을 쉽니다. 농약을 쓰는 건 땅을 죽이는 행위예요. EM(유용미생물)을 사용하면 땅을 죽이지 않고도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식물이 스스로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니까요. 또 달걀과 식용유 등 천연 재료로도 얼마든지 농약을 대신할 수 있는데 굳이 농약을 쓸 필요가 있나요.”

‘농부는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라 여기고 벌레와 곤충, 미생물이 공생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작물은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맛도 좋단다. 지인들에게 텃밭 가꾸기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위해서다. 시장에서 파는 채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지 알기 어렵다. 내 손으로 직접 채소를 키우면 품질 보장은 물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수한 행복과 보람까지 덩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의 순리에 따르며 친환경 유기농법을 고수하는 강동환 사우에게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작물을 물었다.

“지금까지는 가족들, 이웃들과 나뉘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지었어요. 올핸 야심 차게 수확률이 좋은 야콘을 심었습니다. 판매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잘될까요? 또 맛있다고 우리끼리 다 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야콘 역시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식용 가능한 효자 작물이다. 5월 초에 심었으니 11월이면 서너 포대는 넉넉히 수확할 수 있을 거라며 함박웃음을 짓는 강동환 사우. 그의 무한 텃밭 사랑이 작물들에게도 전해지길.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쪽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길 바란다. ㉞

내 손으로 직접 채소를 키우면

품질 보장은 물론

무수한 행복과 보람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더위도 식히고 머리도 식히고! 당신의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북 캠프

쉬지 않고 달려온 2013년도 벌써 반이나 지났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웃음과 눈물을 잃어가는 나를 발견했다면, 움츠러들었던 내 감수성을 되돌려줄 만화책을 읽어보자. 방바닥에 배 깔고 누워 군것질거리와 함께 울고 웃다보면, 어느새 무더위마저도 저만치 달아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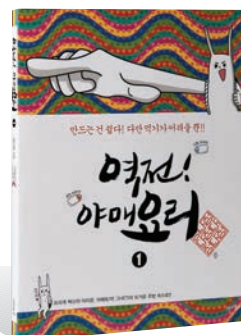
〈결혼해도 똑같네〉



〈술 한잔 인생 한입〉



〈세인트 영맨〉



〈역전! 야매요리〉



〈염소의 맛〉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랑해〉

“이 만화를 보고 결혼이 하고 싶어졌다”

직업 특성상 한 공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걸 함께하는 만화가 부부의 결혼 생활 이야기. 때로는 동료애를 발휘하고 때로는 순수하기 이를 데 없는 애정을 발산하며 읽는 이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남자 친구가 남편이 됐어도 별반 달라진 건 없지만 밥을 게걸스럽게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아내 작가 네온비의 작품으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가 늘고 있는 요즘, 이미 결혼한 사람까지도 다시 결혼하고 싶어 만드는 마력을 느낄 수 있다.

— 네온비, 애니박스, 1만1천500원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술 이야기”

술자리는 사람 간의 경계를 허물어주고, 서로 하심탄화하게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도록 하며,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기도 한다. 퇴근 후 기분 좋게 술 한잔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볼 만한 책 《술 한잔 인생 한입》에서는 술과 함께 먹으면 좋을 다양한 안주와 더불어 술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담백한 분위기와 따뜻한 기분을 수수하게 묘사하고 있다. 평범한 회사의 샐러리맨 이와마 소다츠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공유하고 싶다면 지금, 이 책을 선택하라.

— 라즈웰 호소키, (주)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5천 원

“성스러운 콤비의 성스러운 개그”

불교 신자도, 기독교 신자도, 무신론자도 놓치면 안타까운 화제의 작품. 근검절약이 몸에 밴 찌돌이 붓다와 여고생들에게 “조니 뎀 닳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는 예수가 함께 살며 휴가를 보내는 이야기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하고 파격적인 소재로 큰 인기를 끌며 우리나라에서도 단행본으로 8권까지 출간됐다. 24시간 만화방에서 ‘코믹 만화 보며 웃지 않기’ 수행을 하는 붓다와 온라인 게임으로 악마를 퇴치하는 예수의 성스럽고 새로운 웃음의 세계.

— 히카루 나카무라, 시리얼, 8천 원

“만들기는 쉽대! 다만 먹기가 어려울 뿐!!!”

소금은 소금소금 뿌리고, 후추는 후추후추 뿌리고, 오이는 오잇오잇 썰고, 간장은 아빠 손칼로 세 손칼 넣는 작가의 비범한 요리책.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들어내는, 따라 하기 쉬운 요리를 위트 있는 말재주로 풀어낸 요리 만화책이다. 책을 뒤집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기존 웹툰의 에피소드에서 소개되었던 음식들의 ‘정상적인’ 레시피도 함께 실려 있어 직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볼 수도 있다. 야매요리의 세계에 지금 빠져보자.

— 정다정, 재미주의, 1만1천 원

“수영장에서 맛볼 수 있는 풋사랑의 맛”

이 책의 페이지를 열자마자 푸른 물이 가득한 수영장 특유의 냄새, 소리, 감촉,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이야기 구조에 단 두 명의 주인공, 대사도 별로 없는 채로 컷이 전개되지만, 인물의 행동과 시선을 통해 미묘한 감정을 보여줌으로써 소년의 서투른 사랑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순수한 풋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아련한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책. 그때의 두근거림을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 바스티앙 비베스, 미메시스, 1만2천800원

“슬픈 영화보다 더 슬픈 만화”

보지 못하는 남자와 듣지 못하는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각자의 부족함을 채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연인의 이야기. 슬프다가도 금세 코믹하고 웃기다가도 어느새 감동이 전해지는 이야기 전개로 슬프지만 우울하지 않을뿐더러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근수와 귀가 들리지 않는 소리의 따스한 사랑 이야기로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보자.

— 고영훈, 형설라이프, 1만2천 원

인천 영종도 낙조 여행

노을을 삼킨 바다를 보다

이글대며 태양이 타오른다.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할 만큼 뜨겁다. 출렁이는 물에 식히면 조금 나올까. 매일 저녁 태양이 제 몸을 담그는 바다, 인천 영종도에서 떨어지는 태양을 만났다.

하늘과 바다, 육지를 잇는 다리

영종대교

영종도는 본래 오롯이 혼자인 섬이었다. 그랬던 것이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고, 영종대교가 세워지며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는, 섬 아닌 섬이 되었다. 서울에서 약 20분, 이리도 가까운 곳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섬이 있다는 건 서울이 가진 몇 안 되는 행복 중 하나이리라. '세계 최초 3차원 케이블 · 자정식 현수교'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붙은 영종대교는 1995년 11월 착공하여 5년여간 이어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백미라 불린다. 이후 서해대교, 인천대교 등의 명성에 잇히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교량 건설사의 신기원을 개척한 기록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길이만 4,420m에 달하는 이 다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종대교를 건너기 전에 있는 '영종대교 기념관'에 들러보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교량과학관으로 아이와 어른 모두 상식을 쌓기에 그만이다. 특히 전망대가 있는 3층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영종대교의 멋진 자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섬에서 섬으로
장봉도, 용유도

왼쪽으로는 멀리 공항 신도시를, 오른쪽으로는 북측 방조제를 두고 달리다 보면 삼목선착장 들어가는 길이 나온다. 바로 앞에 보이는 신도를 거쳐 장봉도로 가는 페리호 선착장으로 주변에 작은 횡집 골목이 형성되어 서해안의 별미로 꼽히는 조개구이와 회를 먹을 수 있다. 배를 타고 40분이면 도착하는 장봉도는 크고 작은 봉우리가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형성된 섬. 멸골잔교와 팔각정, 151m의 국사봉 등이 유명한 이 섬은 특히 가막머리 낙조대에서 보는 '해물이'가 일품이란다.

계속해서 방조제를 따라가면 용유도가 나온다. 영종도는 제비가 많아 자연도(紫燕島)라 불렸고, 그 모양이 용이 헤엄치는 것 같아 이 섬에는 용유도(龍遊島)라 이름이 붙었다. 두 섬은 사이의 긴 갯벌을 방조제로 막아 이제는 두 이름을 가진 하나의 모습이다.



해가 녹아드는 풍경
을왕리·왕산해수욕장

길 끝에 다다르면 왕산과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도로에 접어든다.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이 두 곳은, 아름다운 해물이 풍경으로 특히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캠핑장이 들어서면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특히 여러 대의 카라반을 갖춘 오토캠핑장에선 텐트 등의 장비가 없어도 캠핑의 맛을 즐길 수 있다. 한 달이면 2번은 캠핑에 나선다는 이무열 팀장 가족이 왕산가족오토캠핑장(1588-3266)을 찾았다. 누나와 여동생 가족까지 모두 11명의 대식구. 이미 한 차례 갯벌에서 뛰어놀고 온 아이들의 표정이 싱그럽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의 해변인지라 물이 빠지면 새끼만 갯벌이 드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펄 속에 발을 푹 담그고 조개 캐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슬금슬금 해가 질 즈음에 허리를 굽히고 조개를 줍는 이들의 고즈넉한 풍경이 태양과 함께 바다 속으로 녹아들면 저 멀리 영종대교 위에 반짝 불이 들어와 섬은 곧 밤을 맞는다. 10





다 함께 ‘오 솔레미오!’ 생산기술팀의 행복한 클래식 피크닉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인 동시에 부산·경남 지역의 민영방송인 KNN의 창사 18주년 기념 <더 클래식 경남> 공연이 양산에서 펼쳐진 날이기도 했다. 이 귀한 공연을 보기 위해 생산기술팀이 밖에서 뭉쳤다.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되어 모두가 행복했던 13인의 어느 멋진 날.



우리는 솔로 부대, 생산기술팀

하필이면 공연일이 어버이날이라 섭외부터 녹록지가 않았다. 효자 효녀 많은 넥센타이어인지라 팀마다 이날 취재에 난색을 보인 것. 바로 그때 구원투수처럼 사보팀 앞에 나타나준 이들이 바로 생산기술팀. 저녁 식사를 곁들인 클래식 공연이라니 낯설기도 하지만 기존의 회식 분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팀원들이 큰마음 먹고 뭉쳤단다.

“사실 우리 팀원 중 결혼한 직원이 몇 없어요. 다들 솔로라 오늘 같은 날 모여도 괜찮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내심 미안해하는 취재진의 마음을 읽었는지 안경포 팀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워준다. 그와 함께 둘러앉은 팀원들 역시 오늘 회식에 기대가 크다며 눈을 반짝이고 있다. 이전에 클래식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지 묻자 대여섯 명의 사우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래도 양산에서는 음악이나 연극 등의 공연이 활발하지 않아 부산까지 가지 않으면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어려운 탓이다.

“다른 공연도 그렇지만 클래식은 특히 쉽게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 문화 회식을 한다기에 좀 낯설고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나오니 어떤 곡이 연주될지 설레네요.”

송명욱 대리의 말에 다른 팀원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냈다. 공연 중에 즐까봐 걱정이라는 등, 박수는 언제 쳐야 맞는 거냐는 등 공연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느껴지는 다양한 반응들이다.

“재미없으면 졸 수도 있지! 박수야 음악이 너무 좋으면 그때 치고!”

그러다 누군가의 패기 넘치는 말에 모두 웃으며 맛장구를 쳤다. 그래, 문화라는 게 별건가. 내가 느낀 만큼 즐기면 되는 거지.

품질 개선, 이 손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유쾌 발랄한 이들이 포진한 생산기술팀은 생산기술, 공정관리, UR기술의 총 3개 파트, 93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각 파트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다보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개선’과 ‘관리’다. 그만큼 타이어 제조 기술 전반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팀이라는 의미일 테다. 연구소에서 신제품이 개발되면 생산기술파트에서 새로운 타이어의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관리파트에서는 각 설비와 반제품의 공정 능력을 개선해 표준으로 정립한다. 그리고 완제품이 나오면 그 수율 관리와 이를 위한 설비 및 프로세스 개선에 UF기술파트가 힘을 보태는 것이다. 그야말로 삼위일체, 어느 파트 하나도 빠지거나 모자람 없이 생산기술팀 전체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팀의 특성 덕분일까? 이날 모인 13인의 팀원들 또한 농담을 주고받는 데에도 척척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 속으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음악회가 열리는

양산문화예술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꽃이 흐드러진 주변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 예술회관은 벌써 공연을 기다리는 이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더 클래식 경남>은 지역 민영방송인 KNN의 창사를 기념해 매년 열리는 클래식 공연으로 올해는 양산을 비롯해 거제, 창원 등을 순회한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마에스트로 오충근의 지휘가 어우러진 공연은 국민 테너 박인수, 소프라노 서선영,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등의 합주로 최고의 앙상블을 선사해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익숙한 ‘가고파’, ‘새타령’ 등과 함께 이탈리아 민요로 널리 알려진 ‘오 솔레미오’가 연주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객석과 무대가 하나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열정적이었던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사우들은 클래식 선율에 여전히 빠져 있는 모습이다. 클래식이 이렇게나 즐겁고 다이내믹하며 아름다운 장르였던가, 놀라움과 감동 섞인 감상이 사방에서 쏟아진다.



“솔직히 지겨워서 못 견딜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오늘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신이 난 팀원들의 모습에 안경포 팀장 역시 흐뭇한 표정이다. “평소 회식 때는 팀원들이 불편할까봐 식사를 마치면 저는 바로 자리를 비켜줬어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의 회식이라면 서로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으니 팀원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문화적 소양도 키울 수 있어 일석이조네요. 만족도 최고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가 된 생산기술팀은 이날 처음 접한 문화 회식에서 술과 안주가 없어도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알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벡센타이어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일에 매진하는 생산기술팀의 ‘아티스틱’한 내일을 기대한다. ㉮

생산기술팀의 공연 감상 한마디!



- 안경포 팀장
멋진 연주와 찰떡 찰떡 울리는 테너들의 목소리에 대료된 최고의 회식,
- 전재민 대리
클래식의 감동과 아름다운 아나운서까지 볼 수 있었던, 원플러스원 연주회,
- 송명욱 대리
Oh~ 보람 있는 클래식 공연~!! 이제 평생 그대와 함께 GO GO~
- 원창연 사우
아름다운 선율에 취하고 아나운서의 미소에 녹은 최고의 밤이었습니다.
- 조충근 사우
씨스타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클래식이란 충격의 신세계!
- 엄정수 사우
대중가요에 익숙해진 내 감성에 클래식이란 굉장은 놈의 입장! 두둥~!!
- 황현복 사우
잔잔하고~ 웅장하고~ 오늘 밤은 클래식에 퐁당~
- 윤정훈 사우
아~ 신은 저에게 오늘 클래식과의 교감을 하사하셨습니다. 따봉~!!
- 고현민 사우
생각보다 빵빵한 사운드에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 박진태 사우
나는 오늘 뽕짝을 벗고 클래식을 입었다.
- 성창현 사우
고퀄리티 공연으로 인한 미친 감동...!
- 한진희 사우
주미 강의 매력에 반해버린 클래식 음악회! 다음에 또 문화 회식해용~
- 최영현 사우
So~~~Good!! 클래식, 살아있네~

전략기획팀 정세훈 대리 부부의 셀프와인 체험

아름다운 오늘,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여전히 신희의 향기 폴폴 풍기는 결혼 2년 차 전략기획팀 정세훈 대리와 아내 이현주 씨가 둘만을 위한 와인 만들기에 나섰다. 차분하지만 의욕 넘쳤던 이들 부부의 포도주만큼 달콤한 셀프와인 데이트를 훑쳐보자.



뒤셀도르프 내 사랑

나란히 손을 잡고 들어서는 모습에 눈이 부실 지경이다. 말끔한 슈트 차림의 정세훈 대리와 하얀색 미니 원피스를 입은 이현주 씨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근사하게 잘 어울린다. 바쁜 틈에도 사보 촬영을 위해 멋지고 예쁘게 단장해준 마음에 감사한 기분이 들 정도. 낯선 사보팀과의 만남에 수줍어하는 이현주 씨를 에스코트하는 정세훈 대리의 모습이 익숙해 보여 더욱 인상적이었다. “2008년 뒤셀도르프에서 유학하던 중에 아내를 만났어요. 당시 아내도 그곳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있었죠. 지인의 소개로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 제가 공을 많이 들였죠.” 넓디넓은 유럽 땅, 그것도 독일의 낯선 도시에서 만난 귀한 인연이니 결혼한 지 2년이 흘렀어도 이렇게나 서로가 애뜻한 모양이다. 이국땅에서 만난 고향 사람에 대한 반가움이야 당연하지만 그 마음만으로 결혼에 이를 수는 없을 터. 이현주 씨는 정세훈 대리의 어떤 면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걸까?



**부드러운 미소가 매력적인 정세훈 대리와
반짝이는 눈이 아름다운 이현주 씨는
함께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독일에서 혼자 공부하며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 남편이 나타나 저를 이끌어주었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제 연주회에 찾아오기도 하고, 주말이면 교외에서 드라이브도 즐기며 데이트를 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부드러운 미소가 매력적인 정세훈 대리와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차분한 말투를 지닌 이현주 씨에게선 둘이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드는 묘한 마력이 느껴졌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부를 보고 ‘천생연분’이라 부르기도 한다지, 아마.

와인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일부러 짠 것도 아닌데 독일 유학파 출신 부부와 와인이라니 그럴듯한 조합이다.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매장에서 1시간도 못 되어 딱딱,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셀프와인 체험. 조출히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정세훈 대리 부부와 매니저가 바(bar)로 자리를 옮겼다. 와인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음을 통해 자신이 만들 와인의 종류를 정하는 일이다. “둘 다 술을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남편은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금세 붉어지기도 하고요.”



보기 좋게 하트 모양으로
효모를 뿌려달라는 말에
정말 그럴싸한 모양을 그려낸
닭살 부부의 솜씨에 모두가
감탄하고 말았다.



시음 전 뽕은 말이 무색하게도 정세훈 대리와 이현주 씨는 6가지나 되는 시음 와인을 꼼꼼하게 모두 맛보았다. 거친 맛의 카베르네 소비뇽부터 한겨울 언 포도로 만든다는 레드 아이스까지 매니저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찬찬히 와인 맛을 음미하는 모습이 제법 진지하다. 레드 와인은 껍질과 씨까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와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반면, 화이트 와인은 깔끔하고 가벼워 여성이 선호하는 편이라다. 레드 와인은 담근 지 2년에서 최대 3년 후, 화이트 와인은 제조 직후 가능한 빨리 먹어야 최상의 와인을 맛볼 수 있다.

서로 취향이 달라 고민을 거듭한 끝에 부부가 고른 와인은 아내 이현주 씨의 취향을 고스란히 반영한 카베르네 소비뇽과 레드 아이스. 선택이 끝나면 100% 포도 원액을 큰 통에 담고 힘차게 저을 시간이다. 매니저의 시범을 따라 아내와 남편이 번갈아 긴 막대로 거품이 나도록 원액을 휘젓는다. 특히나 정세훈 대리는 베테랑에 가까운 짓기 실력을 선보여 매니저로부터 박수까지 받았다. 그렇게 10분쯤 저었을까, 원액이 적정 이상의 비중이 되면 발효를 돕는 효모를 투입! 보기 좋게 하트 모양으로 효모를 뿌려달라는 말에 정말 그럴싸한 모양을 그려낸 닭살 부부의 솜씨에 모두가 감탄 하고 말았다.



그대는 포도! 나는 이슬! 우리는 와인 사랑~

이제 와인이 숙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쪼르르 서 있는 커다란 통 사이에 정세훈 대리 부부의 와인통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4주 뒤면 전문가에 의해 필터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부부만의 와인 두 병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곧 우리 아들 도영이 돌인데, 그때 답례품으로 셀프와인을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와인통으로 가득 찬 숙성실을 둘러보던 정세훈 대리는 문득 아이 생각이 난 모양이다. 3년여의 열애 끝에 2011년 결혼에 골인한 부부 슬하에는 이제 8개월이 갓 넘은 아들 도영이가 있다. 아들을 ‘왕자님’ 이라고 부른다는 정세훈 대리가 휴대전화를 꺼내 도영이의 사진을 취재진에게 자랑한다. 두 사람의 예쁘고 고운 곳만 꼭 빼닮은 아이는 말끔해 보이던 아빠를 아들 바보로 만들 만큼 작고 감쪽한 귀요미의 자태를 뽐냈다.

“2011년 결혼과 함께 벡센타이어에 입사해 넘치는 행복 속에서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어여쁜 아내와 귀여운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 아들이 다 크면 셋이서 함께 와인을 만들어 건배할 날도 오겠지요? 상상하니 벌써 뿌듯하고 설레는 기분이에요.” 평범했던 포도 과즙이 부부의 알콩달콩한 사랑과 섞여 영롱한 보랏빛의 와인으로 거듭나는 경이로운 체험 끝에 정세훈 대리와 이현주 씨는 다시 한 번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깨달은 모습이다. 와인 향처럼 달콤한 부부의 사랑이 매년 새롭게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 11

더위야, 물렸거래!

소문난 여름철
보양식

맛 VS 맛

국민 보양식 삼계탕 VS 알칼리 식품 오리탕

오늘날 보양식 대표 격인 삼계탕은 지금과 흡사한 닭국의 형태로 오래전부터 먹어왔다. 물론 지금처럼 자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닭이 대량으로 사육된 것은 1970년대이다. 그전까지 닭은 사위쯤 되는 귀한 손님이 와야 내놓은 값진 식재료였다. 조선 시대만 해도 닭은 평보다 귀하게 여겨졌다. 오늘날 삼계탕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두루 즐기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직장인이 복날 챙겨 먹는 보양식의 80%가 삼계탕일 정도다. 서울 동대문시장에 있는 진옥화할매닭한마리(02-2275-9666)는 <미슐랭가이드> 그린가이드에 소개되기도 한 삼계탕 명가 중 하나다. 손님이 알아서 닭을 잘라야 하는 게 번거롭지만 맑은 국물부터 칼칼한 칼국수까지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다.

온 국민이 즐기는 음식이니만큼 다른 재료와 어울려 삼계탕이 색다른 별미로 변신하기도 한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의 장삼원(033-254-9191)은 10년 이상 묵은 장뇌삼을 비롯해서 11가지 한약재를 넣은 장뇌삼 삼계탕으로 보신식 역할을 톡톡히 한다.



보양식의 지존 삼계탕.

한편 근래에 알칼리 식품으로 사랑받으며 닭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오리이다. “닭은 내 돈으로 사 먹고, 오리고기는 뺏어서라도 먹어라”는 옛말이 오리의 영양학적 위상을 말해준다. 오리는 다른 육류와 다르게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동의보감>, <본초강목>에서는 오리고기가 고혈압과 신경통, 동맥경화, 비만증에 좋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탕, 구이, 훈제, 주물럭 등 여러 요리로 즐기지만 그중에서 오리탕은 전라남도의 향토 음식으로 광주시 북구 유동에는 오리탕골목까지 조성되어 있다. 그중 영미오리탕(062-527-0248)은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곳으로 생들깨를 갈아 육수로 쓰기 때문에 국물이 구수하고 걸쭉한 것이 특징이다.



웰빙식의 대표 오리탕.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더위에 축 처져 입맛이 떨어지는 여름이면 더욱 와 닿는 명언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여름을 무사히 보내려면 입맛부터 살리자. 전국 팔도 이름난 보양식 중 놓칠 수 없는 여름의 맛을 모두 모았다.



담백하고 맑은 곰탕.

나주곰탕 VS 서울설렁탕

곰탕과 설렁탕은 닭은 듯 다른 음식이다. 소의 각종 부위가 들어가는 점은 같지만 곰탕은 고기와 내장을 기본으로 하여 담백하게 끓이고, 설렁탕은 뼈, 내장, 양지머리, 쇠머리 등을 넣고 오랫동안 푹 끓여 농후한 맛을 내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오랜 시간 고아내는 과정에서 국물 속에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녹아나고 여기에 생파를 곁들여 비타민도 보충하기 때문에 곰탕과 설렁탕은 영양 면에서 우수하다.

곰탕은 나주의 향토 음식으로 유명하다. 나주오일장에서 상인과 서민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메뉴로 시작해 현재 나주객사 주변으로 곰탕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역사가 오랜 집으로 하안집(061-333-4292)이 있다. 나주에서 4대가 이어 100년 이상 곰탕을 만들고 있는 곳으로 ‘원조집 지정서’에 특허까지 받으며 나주곰탕의 원조로 인정받았다.

서울 명동에도 곰탕 명가로 통하는 곳이 있다. 바로 70년 역사의 하동관(02-776-5656)이다. 이곳 역시 3대가 이어 가게를 운영하며 한우 암소만을 이용해 곰탕을 만들고 있다. 곰탕의 원조가 나주라면 설렁탕의 원조는 서울이다.

이문설농탕(02-733-6526)은 서울 음식점 허가번호 1번으로 등록된 곳이며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소문동의 잠배옥(02-755-8106)도 4대째 운영하는 집으로 국물이 진하고, 신설동의 옥전옥(02-2292-8201) 역시 72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농후하고 구수한 설렁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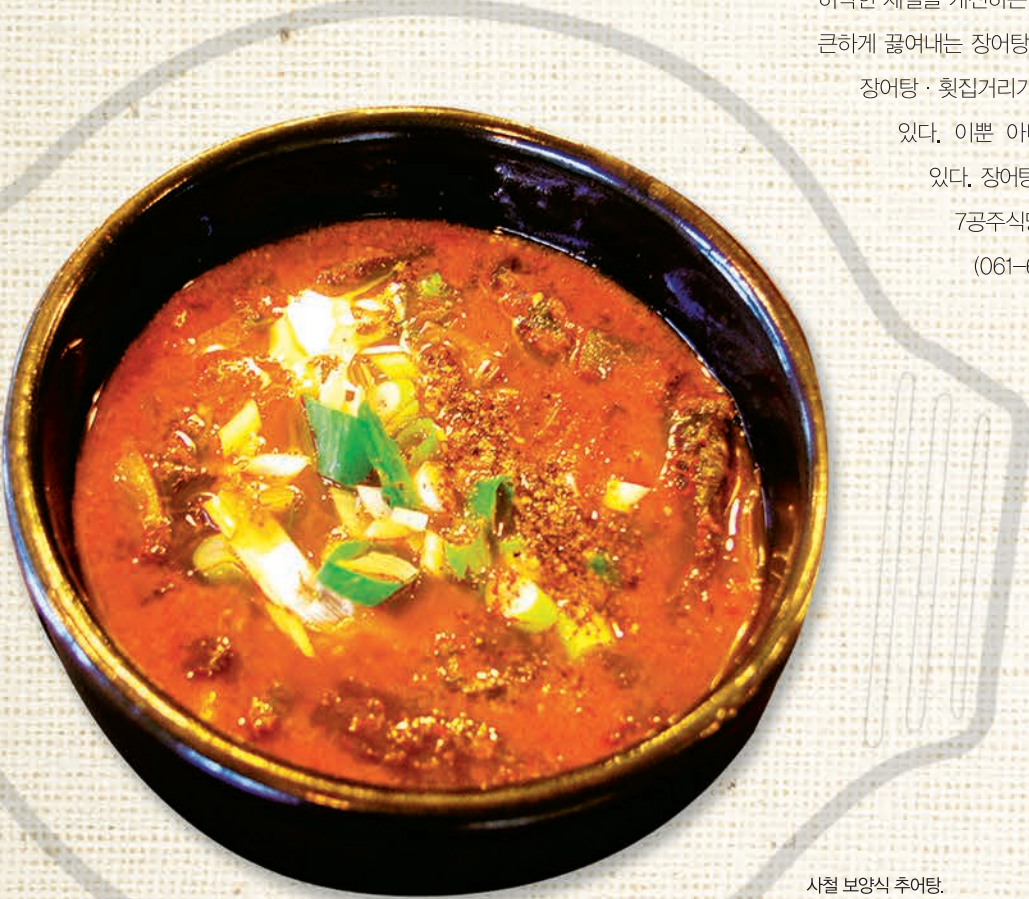
남원추어탕 VS 여수장어탕

〈본초강목〉에 미꾸라지의 성질이 따뜻해 원기를 돋워주고 발기불능에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을 정도로 미꾸라지는 대표적인 보양 식품으로 손꼽힌다. 단백질과 칼슘, 철이 풍부해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특히 미꾸라지의 미끈미끈한 점액 속에 들어 있는 뮤신 성분은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추어탕을 끓이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양한데 서울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어 끓이고, 전라도와 경상도는 미꾸라지를 잘게 갈아 탕에 넣는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는 들깨와 된장을 넣어 걸쭉하게 끓여내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중적인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특별히 섬진강 지류가 흘러 미꾸라지가 많이 났던 남원은 추어탕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이다. 남원시 천거동 추어탕거리의 새집추어탕(063-625-2443)은 추어탕과 함께 미꾸라지숙회로 명성이 자자하다.



스태미나 1순위 장어탕.

합리추어탕(063-625-3356)도 많은 사람이 찾는 향토 음식점이다. 한편 미꾸라지를 능가하는 스태미나 식품으로 손꼽히는 것이 장어이다. 불포화지방산과 DHA가 풍부하고 단백질이 많아 민간에서는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쓰기도 했다. 장어를 각종 채소와 함께 얼큰하게 끓여내는 장어탕은 전남 여수 지역에서 발달했다. 여수 국동에 장어탕 · 횡집거리가 조성되어 10여 곳의 장어탕 전문점이 밀집해 있다. 이뿐 아니라 여수 곳곳에서 장어탕 메뉴를 만날 수 있다. 장어탕 · 횡집거리의 자매식당(061-641-3992), 교동의 7공주식당(061-663-1580), 봉산동의 산골식당(061-642-3455)과 갯마을장어(061-643-2477)가 특히 이름난 곳이다.



사철 보양식 추어탕.

향암 효과 콩국수 VS 노화 방지 들깨칼국수

콩은 식물성 단백질원으로 사포닌 성분이 많아 암 예방과 다이어트에 좋다. 삶은 콩을 곱게 갈아 국수를 말아 먹는 콩국수는 예부터 서민들이 여름 보양식으로 널리 먹었다. 한편 깨국수는 콩보다 가격이 비싸 양반들이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콩과 깨, 비슷해 보이지만 옛날에는 신분이 엄연히 나뉜 음식이었던 것이다. 서울에도 콩국수가 맛있는 집이 많다. 50년 전통의 중구 주교동의 강산옥(02-2273-1591)은 오후 1시 이후면 재료가 떨어져 점심시간에 조금 서둘러야 하는 곳이다. 여의도의 진주집(02-780-6108)은 진한 국물이 일품이고, 서소문동의 진주회관(02-753-5388)은 9,500원의 비싼 가격이 흠이지만 강원도에서 계약 재배한 콩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료를 신뢰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양반들의 깨국수는 보기 힘들지만 대신 피부에 좋아 시집가는 딸에게 먹였다는 들깨국수가 여름 보양식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들깨칼국수 맛집으로는 구리시 토평동의 시골여행(031-565-5828), 인천 연수구 맛자랑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박칼국수(032-815-0028) 등이 있으며 전남 광양시 봉강면의 하조나라(061-762-1177)도 들깨수제비 맛이 좋은 곳. 들깨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니 많이 먹고 피부 미녀에 도전해보자. ㉟



더위를 식혀주는 냉콩국수.

노화를 늦춰주는 들깨칼국수.



그 옛날 콩국수는 서민,
콩보다 비싼 깨국수는
양반들이 즐겨 먹어
엄연히 신분이 나뉜
음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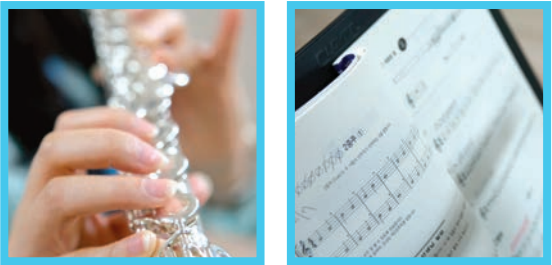


나도 플루트 부는 여자랍니다
은빛 선율에 젖어들다

〈헬로우넥센〉이 2013년을 맞아 야심 차게 시작한 ‘프로젝트 N’, 그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다. 이제는 단순한 자기 계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긍정적인 삶의 방향까지 모색하고 있는 회계팀 신수정 대리님과 원동파트 노정섭 조장! 조금 서툴긴 하지만 아름다운 과정을 그려나갈 두 사람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봐주길 바란다.

● 바쁘다, 바빠~
플루트 레슨
받으러 가자!

일주일에 한 번, 신수정 대리는 업무가 끝나자마자 부산 명지동에 위치한 교회로 급히 발걸음을 옮긴다. 오늘은 같은 교회 예술원 소속 선생님에게 플루트 레슨을 받는 날이다. 연습에 들어가기 앞서 마음을 가다듬고, 악보를 천천히 훑어본다. 발랄하게 플루트를 꺼내 최근에 배웠다는 ‘빠꾸기’를 직접 연주하자 이내 연습실 가득 아름다운 선율이 은은하게 퍼진다. 서투르지만 한 음씩 지그시 눌러가며 곡을 연주하기까지 생각만큼 쉬운 도전은 아니었다. 첫 시간엔 그 어렵다는 ‘복식호흡으로 소리 내기’를 가뿐하게 성공!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녀의 플루트 도전기에 덜컥 덩 브레이크가 걸렸으니 손가락 하나로만 플루트를 지지하는 ‘도’의 운지법 때문이다. 그래도 차곡차곡 쌓아온 연습량과 깨알 같은 선생님 칭찬에 힘입어 지금은 중간 음역을 가열차게 마스터하는 중. 매일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그녀, 요즘은 플루트 연주곡도 따로 찾아 들을 정도로 폭 빠져 지낸다. 예전 같으면 할 일 없이 빈둥거리거나 집에서 뉘 놓고 TV만 볼 시간에 자연스럽게 플루트를 찾는다고.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악보를 제대로 읽을 수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간 많은 사람 앞에서 멋들어지게 연주해낼 날이 오지 않을까. 이제 남은 수업 시간에는 최종 목표인 ‘미뉴에트’를 연주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신수정 대리. 가을께 교회 연주회에서 선보일 그녀만의 ‘미뉴에트’가 진심으로 기다려진다.





턱선이 살아 있네, 살아 있어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 저 멀리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노정섭 조장이라고?

날렵해진 턱선과 살짝 들어간 배를 보니 수술이라도 했나 싶다.
지난 호 사보에 실렸던 사진 한 번 보고, 사람 얼굴 한 번 보고,
몇 번을 번갈아 봐도 고개를 가웃거리게 되는 황당한 시추에이션.
무려 9kg이라는 지방을 털어버리고 매력남으로 거듭난 노 조장!
그의 사전에 다이어트 꿈수란 없다.
다시는 요요현상을 겪진 않겠다는 일념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배드민턴 연습장으로 직행했을 뿐이다.
전문 강사의 개인 레슨까지 포함된 배드민턴 연습은
일주일에 3번, 하루 60분씩이 노 조장의 맘으로 짹짹 채워진다.
호랑이 코치의 날벼락 같은 레슨 10분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 그냥 주저앉고 싶지만
몸 안 곳곳에 꼭 붙어 있는 지방을 몽땅 태워버리려면
티셔츠가 땀에 젖어도 절대 멈출 수 없다.
라켓 잡는 법과 기초 발동작만으로도 죽을 맛이던 첫 시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어느덧 3개월째로 접어든 배드민턴은 그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운동 전 낮은 산도 헉헉대며 가까스로 오르던 체력이
이젠 거짓말 좀 보태 지리산 천왕봉도 뛰어올라갈 정도.
이게 다 배드민턴 덕분이다.
하루 이틀 이를 악물고 묵묵히 하다 보니 살도 빠지고
배드민턴 실력까지 쑥쑥 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게다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니 앉으나 서나 배드민턴 생각뿐이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하게 됐을까.
하지만 이대로 만족할 수 없다!
언젠가는 타 클럽과의 배드민턴 교류전에도 당당히 참여해보고 싶단다.
3개월 후 프로젝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가 흘린 땀의 결실이 여실히 드러나길 기대해본다. ㉞





테드 스미스 인터뷰

‘파란 눈의 넥통령’

테드핑의 넥센히어로즈 열혈 응원기

테드핑, 야구에 인생을 걸다

취재진을 보자마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탑센! (Top+Nexen)’ 이라 외치며 달려오는 테드핑. 전날 팀 순위 1위에 등극한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한 모습이다. 한국인들이 붙여준 ‘테드핑’이라는 별명이 매우 마음에 든다는 그는 오늘도 넥센히어로즈의 승리를 위해 북을 치고 호루라기를 불며 경기에 열정과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의 뜨거운 야구 사랑은 2011년 목동구장에서 시작됐다. 고등학생 시절 농구 선수를 했을 만큼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테드핑은, 집이 가까워 들른 목동구장에서 넥센히어로즈를 처음 만났고 열광적인 한국의 응원 문화에 폭 빠졌다.

“메이저리그의 관중들은 경기 중엔 차분하다가 중요한 순간에만 환호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9회 내내 서서 노래하고 소리 지르며 모두 하나가 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응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야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막힘없이 말하는 캐나다 출신의 테드핑.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된 이유 역시 야구 덕분이었다.

“대학에서 한국어와 스페인어 중 한 과목을 들어야 했어요. 마침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과 쿠바의 야구 결승전이 열리던 때라 한국이 이기면 한국어 수업을, 쿠바가 이기면 스페인어 수업을 듣기로 친구들과 내기를 했죠. 결국 이승엽 선수의 홈런으로 한국이 승리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제 한국 이름이 ‘승엽’ 이 되었어요. 대학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승엽’ 이라고 부르답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온 그는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다가 더 적극적으로 응원에 나서기 위해 근무시간이 비교적 짧은 기업 영어 강사로 직장까지 바꿨다.

5월 3일 열린 넥센히어로즈와 기아타이거즈의 경기. 응원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애국가와 응원가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목이 터져라 불러대는 외국인인 눈에 띈다. 자칫빛 제복을 갖춰 입고 등장한 넥센히어로즈의 열혈팬 테드 스미스이다.





작년 시즌엔 무려 115경기나
보러 다녔다고 자랑하는
그의 표정 어딘가엔
행복감이 잔뜩 묻어 있다.

작년 시즌엔 무려 115경기나 보러 다녔다고 자랑하는 그의 표정 어딘가엔
행복감이 잔뜩 묻어 있다. 넥센히어로즈 경기 시즌권을 사기 위해 집에 있는
TV까지 팔았다니, 이보다 더한 열성팬이 어디 있을까!

넥센히어로즈의 명물, 테드짱

인터뷰 중 사진 촬영을 청하는 팬들에게 포즈를 취해주는 품이 자연스럽다.
열정적인 응원으로 조금씩 주목받던 테드짱이 어느새 야구팬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된 것이다. 목동구장 근처는 물론, 지난 3월 WBC 응원을 위해 찾은
대만에서도 평상복 차림의 테드짱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 사람이 많았다고.
특히 공항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먼저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할 때는 믿을 수
없었다며 아이처럼 들뜬 표정을 짓는다.
항상 흥겹게 야구장을 누비는 테드짱이지만 그에게도 고난은 있다. 상대 팀
응원단이 흥분해 음식물을 던질 만큼 경기마다 응원 대결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한국말을 못하는 척하며 위기를 넘기곤 했는데 이제
의사소통에 능숙한 자신의 정체가 많이 알려져 힘들다고 웃는 테드짱.
하지만 응원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히사영(히어로즈 사랑 영원히)’ 멤버들과 승리 후 함께 맛보는
오겹살과 소주 한잔이 그에게는 둘도 없는 에너지원이다. 게다가 원정 경기
응원을 떠나면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곳곳을 구경할 수 있으니 여행을
좋아하는 테드짱에게는 경기도 보고 여행도 하는 일석이조의 기쁨인 셈.

염경엽 감독님의 체제 아래
선수들 실력이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올해는 플레이오프전 진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탑센!

승리의 넥센, 탑센!
테드짱이 최고로 꼽는 넥센히어로즈의 매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선수단의 끈기이다. 작년 5월 말, 내내 부진하던
넥센히어로즈가 8연승을 하고 1위에 올랐을 때 테드짱은 경기장 계단에 앉아
10대 소녀처럼 펄펄 올랐단다.
응원석에서의 열정만이 테드짱의 전부가 아니다. 그는 “단지 이기겠다는
마음보다 삼진으로 재미를 주겠다는 쇼맨십이 느껴지는 손승락 선수의
플레이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할 만큼 선수들의 특징은 물론 구단의 역사와
팀의 상황, 분위기까지 모두 꿰고 있다. 그런 그의 바람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이들과 응원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란다.
팬들과 함께 뜨거운 응원을 펼친 테드짱의 진심이 닿았는지 이날
넥센히어로즈는 불꽃 튀는 접전 끝에 기아타이거즈에 1:0으로 승리했다.
선수들의 열정적인 플레이와 팬들의 티질 듯한 응원이 거둔 승리였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기세 좋게 전진하는 넥센히어로즈와 함께 ‘탑센’을 향한 테드짱의 응원 열정
또한 더욱 뜨겁게 타오르길 바란다. **N**



재료파트 백운포 바다 청소 봉사

바다의 눈물,

우리가 접수한다!

부산 무지개 자원봉사단의
바다 살리기 봉사에
넥센 사우들이 일손을 보탤다.
이번에야말로 봉사 정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선 김경남 직장, 김대근·서상덕 조장,
김형일·염지훈 사우.
백운포에서 보물찾기 하듯
쓰레기를 찾아 헤맨 유래 발랄
그들의 봉사 활동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장갑부터 끼고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화창하다 못해 덥기까지 한 5월의 어느 날,
넥센타이어 재료파트 사우들이 부산 이기대로 출동했다.
상큼하게 맞춰 입은 민트 컬러의 단체복 덕분에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사우들.
미리 통보한 집합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일찍 도착한 다섯 명의 사우들은 공원관리사무소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오늘 제대로 봉사 정신 발휘해봐야죠.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장갑부터 끼고 할 일을 묻는 사우들에게서 다부진 각오가 느껴진다.
주변엔 삼삼오오 짝을 지어 온 고교생들을 비롯해
가족이나 직장 동료 단위도 많이 보인다.

무지개 자원봉사단 매니저의 말에 의하면 넥센 사우들이 함께한 오늘,
날씨가 좋은 덕분인지 평소보다 많은 50여 명의 인원이 모였단다.

“넥센타이어 사우분들은 백운포에서 정화 활동하시면 됩니다.”

단체 사진을 찍고 담소를 나누는 사이 벌써 미션이 주어졌다.

자, 이제 백운포로 출발해볼까?

아름다운 풍경, 그 너머의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오늘 넥센 사우들이 힘을 쏟을 곳은 이기대 바로 옆 백운포 일대.

“우와! 정지 한번 끝내준다.”

“봉사하러 온 거 맞재? 놀러 온 것 같다야.” 깎아지른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까지 더해져 탄성이 절로 나온다.

기기묘묘한 암벽들이 해안에 비스듬히 몸을 담근 듯한 풍광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한 폭의 귀한 동양화다.

초여름 정취를 즐기는 관광객과 낚시꾼으로 북적이는 백운포는 지금,
절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아름다운 풍경에 쓰레기 투척이라니, 이토록 잔인한 보답이 어디 있을까.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야 할 책임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결국 사람에게 있는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백운포.
지금 이곳은 절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이제 절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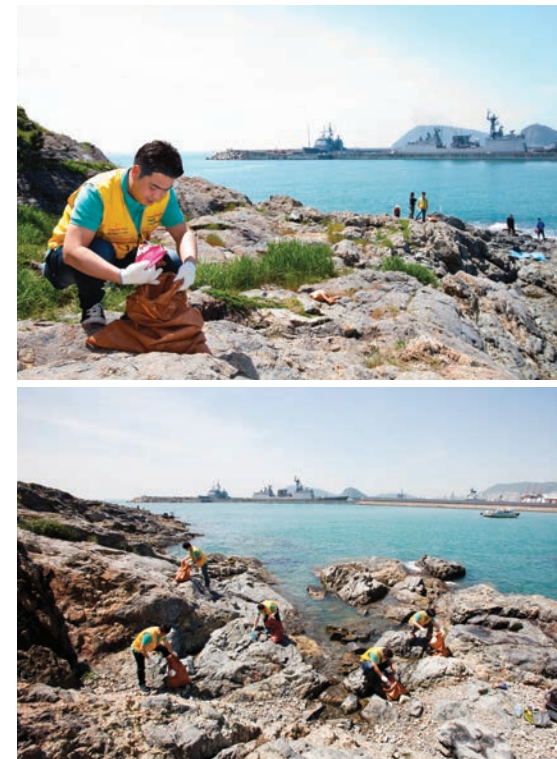
몇 개의 생수통을 비워내고 나서야, 겨우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으아! 절대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
이젠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보면 한마디씩 할 참이다.
2시간 남짓의 봉사 활동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포맷자루는 가득 차고, 사우들의 이마엔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집합지로 돌아가는 길에도 툭툭 튀어나오는 쓰레기를 주워 담느라 바쁘다.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느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느껴진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하루아침에 푹딱 치우기는 어려운 법.
몇 번을 거듭해 이곳을 찾다보면
언젠가 바다와 사람이 함께 웃을 날이 오겠지. ^㉞



오늘은 이렇게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지만
우리들의 바다 사랑은 계속된다.
그러다보면 언젠가 바다와 사람이
함께 활짝 웃을 날이 오겠지.

백운포 쓰레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마구잡이로 버려진 양초,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발견한 사우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손도 닿지 않을 바위 틈새에 버려진 쓰레기는 뭐랄까.
한마디로 미라클?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렸노, 양심도 없다, 진짜.”
“아이고, 하루 종일 주워도 다 못 줍겠는데?”
좋은 일 한 번 해보겠다고 비장한 마음으로 왔건만
병들어 신음하는 자연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느 틈에 벌써 바깥단과 소매를 걷어 올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우들.
보물찾기 하듯 곳곳에 숨겨진 쓰레기를 재빨리 주워 담는다.



● 무지개 자원봉사단과 함께하는 바다 살리기 봉사

지타 공인 부산 최고의 봉사단, 무지개 자원봉사단은 매월 둘째 · 넷째 주 토요일마다 이기대 해안 공원 일대에서 바다 살리기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기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오전 10시까지 집합하며, 코스는 인원과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무지개 봉사단 카페(cafe.naver.com/rainbowvolunteer)에서 하면 된다.

순수의 대지

티니안을 탐험하다

원시의 자연 그대로 머물러 있는 태평양의 섬나라
티니안을 탐험했다. 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브로드웨이를 따라
지프를 타고 달리면서 그곳을 속속들이 느낄 수 있었다.
티니안의 대지는 겸손하고, 바다는 부드러우며,
하늘은 평화를 닮아 있었다.



티니안은 한국에서 동남쪽으로 3,000km 떨어진 서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이판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5 km 거리다. 3,000명 정도의 주민이 미국의 관할 아래 영어를 공용어로 쓰며 관광업을 주업으로 살아간다. 조용하면서도 때 묻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티니안으로 가기 위해선 먼저 사이판을 거쳐야 한다. 사이판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약 10분 정도 가다보면 비로소 서태평양의 낙원 티니안에 당도할 수 있다. 하늘에서 바라본 티니안은 아성의 모습 그대로 시간도 멈추어버린 듯, 고요하고 적막하다. 나는 마치 한 마리의 황새처럼 티니안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티니안은 고요하며 인적 또한 드물어 강한 호기심을 일게 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쁨은 책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만나는 기쁨에 버금간다. 티니안의 심장에서 이 섬과 적합한 단어가 떠올랐다. Discovery! 새로운 발견으로 가슴이 뛰었다.

나는 북마리아나의 순수 대지 티니안을 지프를 타고 바람처럼 탐험하기 시작했다. 섬의 한가운데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브로드웨이를 따라 북단 해변으로 향했다.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의 초원을 가로질러 원시의 대지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대지는 땅, 바다, 하늘 그리고 티 없는 공기로 가득했다. 티니안의 북쪽, 처녀림 사이의 정돈된 길을 따라 달렸다. 외딴 곳에서 마주친 모든 것이 새로웠다. 도로에서 맞는 태평양의 바람도, 이름 모를 길도, 천지에 널브러진 키 큰 들풀도 모두 새로우니 반갑고 또 반가울 따름이었다.

길을 달리며 가장 먼저 만난 특별한 곳은 치겟 비치다. 우측이 절벽으로 막혀 있고, 백사장 가운데에 풀로 덮인 바위섬이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멀리서는 질푸른 바다가 넘실대지만 바로 앞은 에메랄드빛의 얇은 바다여서 물놀이하기에 좋아 보였다. 티니안은 다이빙 마니아들이 바다 탐험에 나서기에도 그만이다. 투코랄, 티니안 그로토 등 신비한 동굴과 절벽, 산호가 즐비하다. 태초의 자연 그대로인 바다의 깊은 심장 속에는 1m에 이르는 거북들과 에메랄드빛의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바닷속 세상은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했다.



Hello **NEXEN**

Profile

함길수는 한양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년간 동남아 종단, 유럽, 시베리아 횡단, 북미, 중남미,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세계를 누비는 자동차 탐험가이자 사진작가다. 글로벌 탐험 전문팀인 'Geo Challenge'를 이끌고 있는 그는 전 세계의 문명 세계와 오지를 찾아다니며 체험한 글과 사진을 각종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blog.naver.com/ham914)

티니안의 북쪽, 처녀림 사이의
정돈된 길을 따라 달리며
마주친 모든 것이 새로웠다.
태평양의 바람도, 키 큰 들풀도,
질푸른 바다도 모두 반가울 따름이었다.

치겟 비치를 지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블로홀에 멈추었다. 블로홀은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 분수다. 구멍이 많은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어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구멍으로 물줄기가 높이 분출되는 장관이 연출됐다. 이 땅,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은 그 독창성과 다름으로 모두 아름답고 신비하다. 태초의 모습인 자연을 마주하는 감동은 그래서 더욱 각별하게 느껴진다.

이 작은 섬 허리쯤에는 티니안의 동맥, 산호세가 자리하고 있었다. 티니안의 베이스캠프와도 같은 곳. 이 작은 마을에도 있어야 할 것은 모두 있다. 법원, 경찰서, 소방서, 학교, 은행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시설이 산호세에 모여 있다. 타운은 한가하지만, 아담하고 호젓한 타운을 기웃거리는 재미도 쏠쏠하다. 동네 강아지들도 기웃거리는, 친근한 태평양의 작은 심장이다. 나는 다시 산호세를 벗어나 티니안 브로드웨이에 접어들며 오프로드를 질주했다. 오밀조밀한 티니안 섬에서 깨어나는 세포들을 느끼며 활기를 찾았다. 태평양의 작은 섬, 티니안에서 같은 하늘, 다른 땅 그리고 거대한 원색의 바다 태평양을 마주하고, 그 안에 한 점인 나를 만났다. 그것은 티니안이 선사하는 '새로운 발견'이라는 선물이었다. ㉞



평생 잊지 못할

내 생애 최고의 휴가



‘휴가’ 하면 언제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제껏 보낸 휴가 중 가장 즐겁고 가슴 벅찼던 추억을 한번 꺼내봅니다. 설렘과 낭만이 가득했던 그때 그 시간 속으로 출발~.



진짜 사나이들의 뜨거운 여름

12년 전, 1박 2일로 남해 상주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친구들과 떠난 여행이라 유난히 기억에 많이 남네요. 특히 남자들끼리 의리로 뭉쳐서 그런지 더욱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튜브 위에 앉아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 사나이랍니다.
(창)생산기술파트 양현진 사원



여유와 낭만이 가득했던 그때

재작년 여름, 야구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경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젠 그 친구들의 반 이상이 결혼해서 여행을 꿈꾸기 어렵지만, 다시 사진을 찾아보며 당시의 추억을 되새겨볼 수 있어 기쁩니다.
강서지점 김현진 사원

정리
이진우, 이경수

Hello NEXEN



호주의 광활한 하늘을 날다

2011년에 1년간 호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운이 좋아 사막에서 울루루(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바위) 보기와 스카이다이빙 하기,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었어요. 특히 2만 피트 상공에서 추락하던 스카이다이빙의 짜릿함은 아직도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답니다. 그 짜릿함이 제 표정에서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창)관리팀 김영훈 사원



넥센 가족과 함께해 더욱 즐거웠어요

양산 본사의 안진호 파트장, 생산기술팀 이영진 대리 가족과 함께 양산오토 캠핑장으로 떠났던 1박 2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숲에서 뛰어놀고, 개울에서 가재도 잡고, 해먹을 타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덕분에 어른들까지도 설레고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창)UF기술파트 최용찬 조장



물장구도 치고, 돌문어도 잡고!

3년 전 제주도로 휴가를 갔습니다. 성산 일출봉 옆 작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작은딸이 “오징어대!”라며 저에게 급히 도망쳐 오더라고요. 보니까 돌문어 한 마리가 물로 올라와 제 작은딸을 쫓아다니지 람니까. 급히 잡았는데 토실토실하니 맛있게 생겨서 리조트에 돌아와 삶아 먹은 기억이 나네요. 뭐, 이만하면 내 생애 최고의 휴가 아니겠습니까.
(창)설비파트 박용훈 조장



엄마! 재 좀 아하다, 그치~

지금은 훌쩍 커서 올여름 해병대에 지원하겠다는 우리 큰아들. 군대에서 훈련받고 땀에 흠뻑 젖을 때면, 1995년 무더웠던 여름 스위스 인터라켄 호숫가에서의 추억을 일렁가 몰라?
마케팅팀 황익진 팀장



내 생애 최고의 힐링 타임

작년 봄, 스페인 북부를 가로지르는 9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두 다리만 믿고 걸었어요. 35일 동안 묵묵히 걸으며 제 인생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날들을 꿈꿀 수 있었던 정말 최고의 힐링 타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길 위에서 저마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을 그들을 위해. Buen Camino!!!
내수영업관리팀 임영민 사원



8년 전과 같은 선물

결혼 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휴가 기간에 어디 한 번 놀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작년에 무작정 서울로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 첫날 남산 팔각정에 올라 처음으로 찍은 가족사진입니다. 이때가 제 생애 최고의 휴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정관리파트 김상문 과장

같이 가자, 하와이~

작년 11월 매력 만점 하와이 여행 중 영업사원의 본능적인 사교성으로 함께 이동하는 일행분들과 브라더 모임을 결성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냅니다. 샌드 비치도, 와이키키 해변도 모두 아름다웠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건 우리의 뜨거운 우정! 결코 잊을 수 없는 휴가였겠죠?
목표지점 김진식 사원





꿈결 같던 제주도 배낭여행의 추억

날씨가 부쩍 싸늘해지던 지난해 늦가을, 100일도 안 된 아들 덕분에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던 차에 아내와 갑자기 공장 휴무 기간에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했다. 그동안 일하느라 지친 내게 주는 포상 휴가란다. 아내와 아이를 두고 가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혼자 느긋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고민 끝에 그동안 가고 싶었던 제주도 배낭여행을 가기로 했다. 3박 4일, 짧지만 오롯이 나만의 여행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근무를 마치고 김해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많은 것을 보고 즐기라며 나의 여행을 다시 한 번 응원해주었다. 제주도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는 길, 그동안 친한 이들과 자가움을 통해 움직이던 버릇 탓에 버스를 타는 데 애를 먹었다. 다행히 고생 끝에 찾은 국숫집은 쫄깃한 면발이 일품이었다. 다음 날은 새벽 3시 40분에 눈을 떴다. 성판악에서 백록담을 거쳐 관음사로 내려오는 9시간의 등산을 계획한 덕분이다. 눈발을 헤치며 올라간 끝에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눈 쌓인 백록담을 가슴에 담았다. 백록담 풍경을 안주 삼아 마신 맥주 맛을 어찌 잊을까.

한라산을 내려와서는 섬 곳곳을 볼 수 있는 자전거 여행을 감행했다. 마주 스치는 사람마다 엄지를 치켜세우며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느림의 미학을 절감한 우도 올레길 트레킹까지 3박 4일이 꿈같이 빨리 지나갔다. 늘 마음속으로만 바랐던 여행으로 더없이 행복했던 시간. 몸이 고되고 아파도 혼자만의 배낭여행은 내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특히 내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준 아내 혜영이에게 감사하다. 재료파트 김중민 사원



동료와 함께한 지리산 종주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왔다. 그곳은 지리산! 지난 3월엔 들뜬 기분으로 노고단에 올랐다가 입산 통제 풋말을 보고 아쉽게 돌아왔었다. 오수익 대리도 지리산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머리보다 가슴에서 먼저 튀어나온 한마디. “지리산 종주 한 번 합시다.” 우리의 산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봄에는 여기저기 만발한 야생화와 진달래를, 여름엔 나무 그늘과 계곡 물소리의 시원함을, 가을에는 오색으로 물든 나뭇잎과 청량한 바람을, 겨울에는 능선 너머 하얗게 눈 쌓인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지리산은 수십 번 올라도 매번 새로운 느낌을 준다. 분명 다른 산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산이다.

노고단 고개가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이했다. 흐드러진 진달래가 유난히 아름다웠다. 돼지령을 지나 지리산에서 가장 물맛이 좋다는 임결령 약수터에서 잠시 쉬었다. 오수익 대리 가방에서 끝없이 나오는 소주 팩과 초콜릿 바에 웃음이 터져 힘겨움을 잊은 것도 잠시, 반야봉을 거쳐 삼도봉에 올랐다. 삼도봉에서 천왕봉 방향으로 내려다보는 경치는 어디에도 빗낼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해가 저물어 연하천 대피소에서 1박 후, 새벽 4시 30분에 다시 출발했다. 기가 막힌 지리산 일출을 보고 있자니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하던 천왕봉 일출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들었다. 선비샘과 세석 대피소, 장터목 대피소를 지나 드디어 천왕봉에 도착했다. 정상에 우뚝 박힌 비석을 보면 언제나 가슴이 벅차오른다. 천왕봉에서 주변 경치를 내려다보며 지리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오롯이 느꼈다. 지리산은 올 때마다 최고의 경관을 보여주지만, 특히 이번 종주는 오수익 대리와 함께해 더 큰 성취감에 가슴이 뛰었다. 이번 산행을 마치면서 나는 또 기대한다. 다음 산행에서 볼 수 있는 지리산의 또 다른 모습을.

(창)전기파트 노승길 사원, (창)성형파트 오수익 대리



호주로 떠난 내 생의 최고의 휴가

참으로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어느덧 머리엔 하얀 눈이 내리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여기저기 묻었다. 그래도 이 시간을 회사에서는 알아주나 보다. 남편의 회사에서 근무 25주년 기념으로 호주 여행을 보내준단다. 생각지 못한 여행에 마냥 기쁘고 고맙다.

긴 새우잠 끝에 호주의 브리즈번에 도착했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강행군이라 힘들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이는 착각이었. 함께 간 이들의 배려가 깊었음은 물론, 선진국 특유의 서비스와 시스템을 보고 배우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역시 여행은 선진국으로 해야 한다는 신랑 말이 맞았으며 일행과 웃기도 했다. 평생 꼭 한 번 보고 싶었던 예술의 끝 오페라하우스와 무슬비 호수 야경 속에서 사랑하는 이와 거닐었던 하버브리지, 그리고 비어 하우스에서 젊은 호주 청년의 프러포즈로 난생처음 무대 위 주인공이 되어 춤을 추었던 로맨틱한 기억까지. 마치 아름다운 달빛에 홀린 듯한 나날들이었다. 골드코스트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때는 잠시 ‘나, 여기서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

결혼 25주년, 근무 25주년. 그동안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온 날들에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게 해준 남편의 회사에 참 고맙다. 그리고 같이했던 좋은 사람들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창)엔지니어링센터 조형진 부장의 아내 손현옥 님





내 돈이 새고 있다?

천하무적 월급 통장 찾기

요즘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금리가 속수무책으로 하락하면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어느새 1%대까지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재테크하기 힘든 때일수록 전문가들은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월급 통장 관리 전략부터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월급 통장을 '황금알 통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다.

자동이체 빠져나간 후 소비하라

월급을 받자마자 흥청망청 쓰기 바쁜 사람과, 조금이라도 돈을 떼어내 저축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작은' 차이는 10년 후에 굉장히 '큰' 차이로 확인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월급 중 저축은 과연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할까? 각자의 연봉이나 생활 환경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전문가들은 적어도 자신이 받는 월급 중에 50% 이상은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때 목돈이 들어와도 당초 계획한 곳에만 쓰고, 월급 통장에는 가급적 돈을 남겨두지 않는 독한 마음도 필요하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통장에 있으면 소비에 대한 유혹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돈이 남아 있더라도 지출 계획에 따른 사용처가 있다면 쉽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뚜렷한 용처가 없는 여윌돈은 사치와 과소비를 부르기 쉽다. 아예 월급날에 맞춰 각종 저축 상품으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른바 선(先)저축 후(後)소비 법칙이다. 단, 자동이체를 걸어놨다고 해서 나 몰라라 방치해선 곤란하다. 좋은 목수가 자신의 연장을 매일 손질하듯, 월급 통장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가 잘되고 있는지 꼭 들여다보며 사후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



좋은 목수가 자신의 연장을
매일 손질하듯,
월급 통장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들여다보며 사후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

내게 맞는 똑똑한 월급 통장

1 자금 인출이 뜸한 이 차장
월급 통장에는 통상 소액의 예금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씨티은행이 최근 선보인 '쑹쑹 자라는 콩나물 통장'은 예치 기간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입금 후 9주 동안 금리가 매주 차곡차곡 상승하는 재미있는 구조인데, 최초 입금 시 연 0.01%로 시작해 매주 0.45%포인트씩 상승, 9주 차부터 150일까지 연 3.6%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51일이 지나면 적용 금리는 연 1.0%로 떨어지니 유의하자.

2 자동이체 거래가 잦은 박 과장
IBK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횡수 제한 없이 면제해준다. 휴대전화 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의 자동이체를 걸어두면(신용카드 이용 30만 원, 적금 자동이체 10만 원 이상) 은행 자동화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가 공짜다. 또 자동이체 후 남은 돈이 50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일 경우엔 연 3% 안팎의 고금리로 이자를 주는 것이 특징.

3 조만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김 대리
신한은행의 '신한 직장인통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한 여성 직장인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직 기간 중에도 급여이체를 할 때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 육아휴직으로 꼬박꼬박 나오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서러운데, 수수료 혜택까지 사라져서 억울할 수 있는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다.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수수료와 이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특히 자동이체가 모두 끝난 후 예상보다 많은 돈이 통장에 남은 경우엔 초과 금액을 이 통장과 연계한 적금으로 자동으로 이체해주는 '스윙 서비스'가 편리하다.

4 티끌 모아 태산 만들려는 신입사원
SC은행의 '내지갑통장'은 수시 입출금식 통장에선 찾기 어려운 높은 금리를 준다. 통장 예치금이 50만~2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 4.1%의 금리를, 200만 원이 넘어가는 예금에는 연 1.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이 입금된 경우라면 50만 원에는 연 0.1%, 150만 원은 연 4.1%, 300만 원은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수수료는 전자금융·ATM 출금이 모두 무제한 면제인데, ATM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엔 한 달에 다섯 번까지만 면제해준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 한도는 월 70만 원 이상. ⑩



조현두 사우

정대호 사우

(창)재료파트 정대호 · 조현두 사우의 진주성 나들이

논개의 생애처럼 조금 더 뜨겁게, 찬란하게



나들이 하루 전, 정대호 사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일 넥센타이어 근무복을 입고 가도 될까요?”
창녕공장 소속으로서 근무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 안타깝게도 사진 촬영을 위해 편안한 복장으로
권유하긴 했지만 만나기 전부터 이들의 불타는 애사심을 느낄 수 있었다. 논개의 총질이 서려 있는 진주성과 참 잘
어울리는 (창)재료파트 정대호 · 조현두 사우와의 나들이는 그렇게 시작됐다.

축석루에 오른 넥센의 열혈 남아들

진주성 정문인 공북문을 지나 두 사람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벼랑 위에 높이 솟았다’ 하여 이름 붙은 축석루다. 벼랑 위에 위엄 있게 서 있는 축석루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로 진주 8경 중 1경으로 꼽힌다. 축석루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논개가 왜장을 꺼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한 곳, 의암이 보인다. 논개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밟았던 장소, 의암에서 바라본 남강은 논개의 이야기 때문인지 유난히 고요하게 흘렀다. 남강을 오랫동안 바라보던 조현두 사우가 침묵을 깨고 한마디를 던진다.

“원래 의암은 강 한가운데 있었는데,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대요. 바위가 암벽까지 와 닿는 날엔 큰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에 일동이 폭소를 터뜨렸다. 심상치 않은 유머를 구사한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분위기 메이커로 팀내 최고의 인기남이란다.

“성격이 참 밝고 긍정적이라 다들 조현두 사우를 좋아해요. 우리 파트의 활력소지요.”

선배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후배는 한술 더 뜬다.

“선배님은 항상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찾아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시고요. 전 그저 믿고 따라가는 거죠.”

진지하게 속내를 말한 건 처음이라며 두 사람은 이내 씩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고된 현장에서 날마다 얼굴을 보며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가 아니던가. 평소애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어도 이미 서로의 진심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단단하게 다져진 것도

창녕공장에서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주성길 걸으며 인연을 되새기다

무더운 날씨에 한참을 걷다보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잠시 더위를 식힐 겸 매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정대호 사우가 “지금쯤이면 우리 공장은 엄청 시원할 것”이라며 창녕공장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냉방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더운 여름에도 걱정이 없어요. 근무 환경이 참 좋습니다. 최고의 설비와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어 불필요한 노동력도 들지 않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단단하게 다져진 것도 창녕공장에서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꼼꼼한 성격의 정대호 사우는 창녕공장에 최신 설비를 도입할 당시 무엇 하나 놓치는 부분 없이 공부해놓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보고,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했다. 조현두 사우 역시 습득력이 좋아 선배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갔으니 이보다 더 좋은 합이 있을까. 하지만 이들의 호흡이 처음부터 잘 맞았던 것은 아니다. 현장의 특성상 처음엔 조현두 사우를 많이 혼내기도 했다.

“현장에선 안전이 우선이라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일부러 더 호되게 꾸짖은 적도 꽤 있었죠. 인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조금 미안할 때도 있었네요.” 조현두 사우는 오히려 많은 것을 가르쳐준 선배가 감사할 따름이란다. 또 늦은 시간까지 남아 더 나은 작업 환경을 고민하고, 설비에 대해 공부하는 정대호 사우를 보며 닮고 싶은 선배라 생각했다고.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성곽 길을 걷다보니 서장대, 호국사 등을 거쳐 어느새 마지막 코스에 다다랐다.



고등학교 때까지 양궁을 배웠다는 조현두 사우의 강력

추천으로 들른 진주국립박물관의 활쏘기 체험장이다.

후배가 먼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 시범을 보였다.


10점 만점에 9점, 아직 녹슬지 않은 실력이다. 정대호 사우도

후배의 지도에 그럴듯한 폼으로 신나게 활시위를 당겼다.

두 사람 모두 눈앞의 과녁을 향해, 그들을 기다리는 인생의 과녁을 향해 마음의 활시위까지 힘껏 당겼으리라.

정대호 사우는 후배와 함께한 오늘의 진주성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단다. 곧 입사 1년을 맞게 될 조현두 사우 역시 미리 받은 서프라이즈 선물 같은 날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두 사람은 진주의 역사와 논개의 충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진주성에서 약속했다. 함께 더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갈 것을.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고, 태양보다

더 찬란한 생을 살았던 논개처럼 말이다. 



휴가 전후 타이어 점검법

타이어,
사랑받은 만큼 보답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자동차로 이동할 일이 많아

그만큼 사고도 집중되는 시기다.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타이어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부주의다. 사고를 줄이려면 타이어도

사랑해줄 필요가 있다. 받은 사랑을 ‘안전’으로

보답해줄 타이어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자.



타이어 공기압 점검

공기압은 승차감과 효율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과다하면 효율이 3~6%까지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효율보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고의 위험성이다. 통상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 주행을 하면 타이어가 일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적정 공기압에서 10%씩 공기압을 줄여가며 고속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정 공기압 타이어는 파손이 없었지만 공기압 70% 정도에선 모양이 심하게 일그러져 타이어가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공기압쯤은 약간 부족해도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반면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완충 기능이 떨어져 승차감이 나빠지고, 갑작스러운 충격을 가 할 때 파열되기 쉽다. 또 지면과 접촉하는 타이어 트레드 중앙 부위만 닳는 이상 조기 마모나 한쪽만 닳는 편마모를 유발해 차체 흔들림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은 휴가철은 물론, 늘 철저히 사랑(?)해야 한다.

마모도와 사고율은 정비레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타이어 마모다. 신발도 밑창이 닳으면 마른 노면이라도 쉽게 미끄러지기 일쑤다. 타이어 마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표면이 닳을수록 접지력이 떨어져 제동력이 저하된다. 특히 비가 오면 위험도는 3배 이상 증가한다. 흔히 말하는 타이어 표면, 즉 트레드 홈이 얇을수록 빗물을 바깥으로 내뿜는 배수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다. 빗물을 밀어내지 못하면 물 위로 타이어가 회전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못해 헛도는 현상이



발생한다. 노면을 움켜쥐어야 할 타이어가 따로 헛돌면 조향력을 상실해 어느 방향으로 미끄러질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마모도 체크는 매우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100원짜리 동전을 거꾸로 트레드 홈에 끼웠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전부 드러나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다.

타이어도 감기에 걸린다

일반적인 사람의 감기 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기침 등이다.

타이어도 고속 주행 때는 감기에 걸리는데, 증상은 발열로 나타난다. 특히 과적이나 공기압이 과부족일 때는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 한번 올라간 열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동안 계속 타이어 내부에 쌓이는데, 이때 한계온도는 약 125℃로 설정되어 있다.

그 이상으로 높아지면 타이어를 구성하는 고무와 타이어 코드 등의 접착력이 저하돼 결국 펑크가 난다. 따라서 적정 공기압과 하중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열을 식혀주기 위해 고속도로 주행 때 2~3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하다. 10분 휴식만으로도 타이어 내부 온도를 약 20℃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

비포장도로 주행 시 주의할 점

비포장도로를 주행할 때는 휠 얼라인먼트나 밸런스에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비포장도로를 주행한 뒤 한쪽으로 기울거나 조향장치에 이상을 느꼈다면 휠 얼라인먼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타이어와 휠 사이 또는 타이어 표면의 홈 사이에 작은 못이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발생하는 펑크도 살펴야 한다. 외형상 괜찮아 보이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공기압이 서서히 빠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㉞



넥세니의 타이어 교체기

타이어테크 동감해점

이번 호부터 타이어테크는 넥세니 캐릭터와 함께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 주인공은 친절하고 깔끔한 매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타이어테크 동감해점이다.



아니, 갑자기 차가 왜 이러지?
타이어가 이상해!
이런 시간인데 빨리 봐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



어서 오세요, 저희는 늘 저녁에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아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내방하시는 고객님을 바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멋진 고객님~ 타이어테크 동감해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반겨주시니 아침부터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안녕하세요! 강호덕 사장입니다. 저기 명함이 보이시나요? 운영하는 매장만 벌써 9개입니다. 그만큼 영업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죠. 동감해점이 잘나가는 타이어 전문점이 된 것도 저와 직원들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팀워크가 매장에서 꽃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과는 일한 지 10년이 넘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인 관리부장 김치문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는 말 아시죠?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바로 타이어테크 동감해점의 꼼꼼함을 알고 있지요.



평소엔 수줍음이 많지만 자동차 수리에 관해서라면 용감무쌍한 김종민 과장입니다. 오늘 고객님을 위해 특별히 장비를 들여봤습니다. 저 좀 멋있죠?

마지막으로 제! 타이어JK 이정길 점장입니다. 이윤이 많이 남는 타이어 추천은 No! 목적에 맞는 맞춤형 타이어를 권해드리고 있죠. 고객님 그런데 어떤 문제, 어떤 problem으로 오셨나요?



어제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바빠서 그러는데 지금 당장 고쳐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희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기서 음료수 한 잔 쪽 들이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까
르
끔



매장 안

매장 구경이나 해야겠다. 우왓! 매장이 어쩔 이렇게 깔끔하담? 여기 분명 남자들만 있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심지어 타이어 취급 요령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잖아! 감동적이다.



저희 타이어테크 동강해점은 기름 냄새 진동하는 옛날 카센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녁마다 미리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있죠. 저기 타이어 래핑 된 것 보이시죠? UV 및 오존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명에 의해 불링불링해 보이는 전시효과도 있습니다.



까
르
끔



끔
끔



어디 보자~
직원들 호흡이 척척
잘 맞는 것 같군.



최신 3D 휠 얼라인먼트 장비까지
갖추고 있대니. 역시 믿음이 가는 곳이야.



어휴~타이어의
편마모도
심한 편이네요.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요, 신속 정확한
타이어테크 동강해점 아닙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Wow



우왕 진짜 감동입니다.
타이어 교체는 물론
차량 점검까지
해주시다니. 앞으로
타이어에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여기로
와야겠어요!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단골손님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타이어테크 동강해점. 이들의 목표는 타이어 월 1,000개 판매다. 언제나 깔끔한 매장 분위기와 환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는 타이어테크 동강해점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고객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많은 고객에게 알려져,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매장이 되길 기대한다. ㉮

당사가 넥센타이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나온 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기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해 왔다. 넥센타이어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활동은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는 물론 넥센타이어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일을 향해 날아라!

다시 한 번 비상을 준비하는 넥센타이어

2010년 어려움에 처해 있던 히어로즈에게 넥센이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꾸준한 선수 확보와 육성에 힘쓴 결과, 2013년 현재 넥센히어로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날개로 비상을 준비하는 넥센타이어를 향한 오마주처럼 보인다. 오늘보다 내일을,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하며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는 넥센타이어의 강점은 과연 무엇일까.

창녕에 세계 최고의 타이어 자동화 공장을 세우면서 새로운 인력 수요가 급증한 넥센타이어는 기존과 달리 자동화 공정에 적합하고 변화와 도전에 충실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개채용과 수시채용, 헤드헌팅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들을 찾는 것은 물론 우수한 인력을 교육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넥센타이어는 신입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OJT 등 조직적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입사원 평균 퇴사율을 대폭 감소시켰다. 특히 강병중 회장을 비롯해 최고 경영진의 관심 속에 치러진 OJT 성과발표회는 구성원들 스스로 주인 의식과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OJT 기간에 거둔 성과에 대해 신입사원만의 톡톡 튀는 의견을 발표하고 활발히 소통함으로써 즐거운 조직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OJT 성과발표회는 구성원들 스스로 주인의식과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넥센타이어는 2015년 목표 달성을 위한 넥센인의 비전 공유와 목표 의식 공유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봉 대표이사와 넥센의 모든 가족들은 빅뱅, 퀀텀점프, 성즉명, 빅챌린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혁신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 중이다.

마지막으로 각 직무 분야별 전문 지식과 지혜를 갖추기 위한 교육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실행하고 있다. 현재 넥센타이어의 중장기 전략과제 중 핵심인 MDC 구축의 일환으로 인사팀에서는 각종 인사제도의 보완과 개편은 물론 인재개발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영업부문은 2010년부터 영업전문가, 마케팅전문가과정을 거쳐 올해에는 글로벌 마케팅과정을 신설해 내수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 중이며, 창녕공장의 경우 품질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OP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6월 11일부터는 연구본부의 R&D아카데미를 통해 연구 인력의 다양한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넥센타이어는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 외부적으로는 해외지점 및 법인의 확대와 창녕공장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브랜드 가치의 상승 등이 중요한 시점이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지속적인 변화와 구성원의 역량 향상 도모가 절실하다. 앞으로 넥센타이어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Marketing Drive Company로의 방향 전환을 꾀할 예정이다. 뜨거운 열정과 애사심을 기반으로 지금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넥센타이어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 것이다. ㉞



2013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개막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2013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이 지난 4월 13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이번 시즌은 참가 차량이 총 300대가 넘어 최다 참가 기록을 세우는 등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고 있다. RV/SUV 부문의 '엔페라 R300과 200 클래스' 는 육중한 드라이빙으로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보여주었으며, 승용 부문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엔페라 GT 클래스' 는 세련된 드라이빙으로 환호성을 자아냈다. 그 밖에도 프로야구팀 넥센히어로즈의 시즌 개막에 맞춰 야구 이벤트를 진행함은 물론, 여성댄스 그룹 '스텝걸' 의 축하 공연, 레이스 모델과의 포토 타임, 푸짐한 경품 행사 등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중대형 세단을 위한 프리미엄 타이어 '엔페라 AU5' 출시

넥센타이어가 지난 4월 10일 중대형 세단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엔페라 AU5' 를 출시했다. 연비 성능이 우수하고 마모에 잘 견디는 등 동급 타이어 중 최고의 마일리지 성능을 갖췄으며, 비발디 <사계>의 음계를 모티브로 한 패턴 디자인을 통해 정숙성과 승차감을 높였다. 또 덩플 구조와 비대칭 패턴 적용으로 부드러운 핸들링을 제공하고, 조종 안정성까지 극대화했다. 출시 직후 공식 체험단을 구성해 4주 간에 걸쳐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프리미엄의 완벽한 진화' 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우수한 타이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주목받는 신상품에 선정되는 등 '엔페라 AU5' 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국내 신차 비중이 증가하고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프리미엄 시장의 확대와 함께 최고급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번 '엔페라 AU5' 출시를 계기로 중대형 승용차 운전자의 새로운 니즈를 반영, 프리미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치바이인치 레이싱팀 후원

넥센타이어는 지난 4월 5일 오전 인치바이인치 레이싱팀과 조인식을 갖고 2013년 한 해 동안 후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넥센 N9000 클래스' 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한 인치바이인치 레이싱팀은 올해 인기 여성 카레이서인 고명진 선수를 영입하며 감독 겸 선수 박용희, 연예인 레이서 이동훈과 함께 팀 구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올해는 N9000 클래스 이외에 GT 클래스에도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며 브랜드 홍보에 기여 중이다. 인치바이인치 레이싱팀이 참가하는 슈퍼레이스는 중국과 일본 등 해외 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홍보 효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넥센 N9000 클래스 4년 연속 공식 후원

넥센타이어가 지난 3월 21일 (주)슈퍼레이스와 '넥센 N9000 클래스'의 공식 타이어 후원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넥센 N9000 클래스'를 후원하게 됐다. 특히 올해 '넥센 N9000 클래스'는 넥센타이어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선수들에게 참가비와 타이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1차 예선 탈락자를 대상으로 2차 예선인 패자부활전을 거쳐 5명의 선수를 추가로 뽑는 '컷오프 제도'를 새로 도입해 더욱 흥미를 더했다. 넥센타이어는 그간 슈퍼레이싱 후원을 비롯해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등 다양한 스포츠마케팅 활동으로 아마추어 선수를 발굴하는 등 수준급 드라이버 양성에 공헌해왔다.



‘LA 다저스’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넥센타이어가 LA 다저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현지 마케팅에 나섰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넥센타이어는 2013년 시즌 동안 LA 다저스 홈구장 내 홈플레이트의 포수 뒤 롤링보드의 길이 6.0m, 높이 0.8m의 광고판에 브랜드를 노출하게 된다. 'LA 다저스'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를 연고지로 하는 메이저리그 소속의 인기 구단으로 과거 박찬호 선수가 활약했으며, 지난해 12월 류현진 선수의 입단으로 국내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팀이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LA 다저스와의 파트너십이 미국 시장 내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日 미쓰비시 ‘아웃랜더 스포츠’에 OE 공급

넥센타이어가 지난 5월 말부터 일본 완성차 업체인 미쓰비시 자동차의 '아웃랜더 스포츠'에 타이어 공급을 시작했다. '아웃랜더 스포츠'는 미쓰비시가 미국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콤팩트 크로스오버 차량(CUV)으로 미국 일리노이 주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최신 모델에 넥센타이어 엔프리즈 제품 16~18인치가 장착된다. 넥센타이어는 2012년 5월에 국내 타이어 업체로는 처음으로 미쓰비시의 중형 세단인 랜서에 글로벌 OE 공급을 개시했으며, 현재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업체와 OE 공급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OE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넥센타이어 축구단 경남도민체육대회 일반부 공동 3위



넥센타이어 축구단이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일반부에서 양산시 대표로 출전해 공동 3위에 입상했다. 지난 4월 26일 사천시 곤명축구장에서 열린 8강전에서 넥센타이어 축구단은 강호 김해시청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득점 없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까지 진행되었으나 4:2로 승리를 거머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한국국제대를 상대로 아쉽게 패한 넥센타이어 축구단은 공동 3위에 입상했다. 1996년 2월 1일 창단된 이래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넥센타이어 축구단은 선수 개개인이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추고 있어 다른 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넥센타이어 축구단 이성민 감독은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올 한 해도 좋은 모습으로 회사의 브랜드 홍보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현대사회에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방법 한두 가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꼭꼭 숨겨두었던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헬로우넥센>에서 공개합니다.

이번 농반진반은 순위를 매기기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이 다르듯 푸는 방법도 제각각이고 누군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누군가에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농반진반은 다양하고 별난 사우분들의 비법을 한데 모아 가볍게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극복한다! 과도한 운동을 통해 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잡념을 없애는 방법을 택한 사우가 보입니다. 조깅, 축구, 등산, 배드민턴 등 운동의 종류는 제각각이지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겠다는 의지는 한결같네요. 막상막하의 또 다른 비법으로는 음주가 떠올랐습니다. 술 한 잔에 스트레스 하나 날리고, 친구와의 즐거운 수다로 또 하나 날리다보면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다만 과하지 않게, 적당히 마시는 센스!

음주의 짝궁, 가무도 스트레스 해소책으로 빠질 수 없지요. 친구와 함께하는 노래방도 좋지만 혼자서 예약 목록을 짝 채우고 김경호, 임재범 등의 가수에 빙의해 사우팅하다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답답한 속도 후련해진다나요? 소박하게 오락실 구석에 있는 코인 노래방을 애용하시는 사우님도 몇몇 보입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넥센 사우들 사이에 캠핑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자연과 함께 호흡하다보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잠을 자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얼마나 잠을 자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비법인데요, 그 밖에도 영화를 보거나 야구, 축구 등과 같은 스포츠 관람, 친구들과 수다 떨기, 드라이브 등등 알찬 비법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비법들만 따라 해도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갈 것 같죠?

아, 그리고 보니 사보 담당자도 스트레스 해소 비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방법인데요, 파도 소리에 귀가 뻥~ 뚫리고, 소리를 지르다보면 속이 뻥~ 뚫리는 것이 효과가 참 좋습니다. 어때요? 넥센 사우 여러분도 함께 해보실래요? ㉞

“넥센 사우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함께 해볼까요?”

주말에 과자 한가득 사놓고 밀린 드라마 보면서 이불 안에서 뒹굴뒹굴~

술 마시고 난 후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 확 날려요~

오랜 친구들과 닳고 닳은 옛 추억을 또 한 번 곱씹기!

키스~~ㅋㅋㅋ

한 달 전 태어난 예쁜 우리 딸 웅알이 한 방이면 스트레스 안녕!

야구장 가서 치킨에 맥주 한잔, 그리고 넥센히어로즈를 열심히 응원하면 묵은 스트레스가 싹~

역시 수다가 만병통치약! 남자여, 수다하라!

혼자 인근 산을 정상까지 쉬지 않고 오르는 전투 산행!

정신없이 살아서 스트레스를 안 받네요 나중에 정신 돌아오면 생각해보겠습니다



늦둥이를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스트레스 해소에 최적의 방안입니다

넓은 바다를 보며 강태공이 되어 낚시 즐기기

책상에 붙어 있는 딸내미 사진을 보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네요!

자전거 들고 산으로 고고~!! 땀 짜~악 빼면 유쾌 상쾌 통쾌!

소매에 취해 클럽에서 댄스! 댄스?

알코올홀릭 + 뒤텔화???

드라이브하며 오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크게 따라 부르기!!(물론 혼자서...)

잠자기! 무조건 잡니다~ 폭 자고 일어나면 피로도 풀리고 기분도 한결 좋아져요~

매운 음식 폭풍 흡입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거나 동물과 놀며 자연을 즐기면 그게 바로 NO 스트레스의 길!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넘 청승맞나? 그래도 후련해져요

목욕 가서 땀 빼고 냉온욕 찬물, 뜨거운 물 오가다보면 다 잊는다



파이팅~ 내 사랑 넥센히어로즈!

시즌이 한창인 현재 염경엽 감독의 넥센히어로즈호가 순항 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패기 넘치는 넥센히어로즈의 플레이에 우리 넥센인들도 신바람이 납니다. 열정 가득한 넥센인들의 응원 댓글 릴레이!

전철우

우리 함께 갑시다! 넥센히어로즈, 제일 좋아해~♥

박상기

이번에는 우승 한 번 합시다! 아자 아자, 파이팅!

성낙희

승리의 여신은 넥센!

차광섭

올해는 가을에도 야구합시다.

박경구

가자, 한국시리즈!

임상우

넥센히어로즈 시즌 경기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관중, 그리고 팬들을 생각하시면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

김상문

승패와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날, 변함없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황도인

잘 치고~ 잘 받고~

천명재

드디어 4강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비상하라, 넥센히어로즈!

조광신

나이트-김병현-밴 헤켄-강윤구-김영민으로 이어지는 5선발 체제, 그리고 든든한 마무리 손승락. 올해는 기필코 가을 야구합시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성호

넥센히어로즈의 대박 나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희석

염경엽 감독님~ 올해는 꼭 가을까지 넥센의 이름을 널리 떨쳐주세요!

이상영

투타의 환상적인 조화! Go! 히어로즈 Go!

김병희

송지만 선수의 투혼,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성적을 기대합니다!

박경원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정당당한 경기로 감동 넘치는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정재현

신흥 강호 넥센히어로즈 가져!!! 파이팅!

김한중

올해는 오지게 한 번 해보재!

오창현

넥센히어로즈의 영원한 승리를 기원합니다!

박정욱

어우~ 요즘 넥센히어로즈 너무 잘나가요^^ 이러다가 금년 플레이오프 우승 가나요? 가나요~?

송진아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번 시즌에 빛나는 듯하네요!
자랑스럽습니다!

길아람

박병호 선수, 제대로 실력 발휘해주길!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이광식

내일은 우리의 것. 영원하라, 넥센이여!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사내독자 부서

사외독자

이름 (남 · 여)

주소

연락처 E-mail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1.1~2013.12.31

양산우체국 승인
제 23호

받는 사람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넥센타이어(주) 경영관리팀 사보담당자 앞

(전화 055-370-5283)

NEXEN TIRE 넥센타이어

6	2	6	-	2	3	0
---	---	---	---	---	---	---

- 〈헬로우넥센〉에 전화고 싶은 의견(좋은 기사, 아쉬운 기사, 바라는 점 등).

-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사연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전화 055-370-5283)

● 머리가 좋아지는 스도쿠

		8				3	9		
	3	9	4			2	1		7
7					1			6	
1					8		6		4
	9			5	3			1	
3		2	1						8
	6				4				1
4		3	7			1	8	5	
		1	3					4	